

## 남가주교협, 제42차 정기총회 내달 7일

벤엘장로교회에서 내달 7일 오전10시에 열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교협, 회장 민종기 목사)에서 제 42차 정기총회를 11월7일 오전 10시에 벤엘장로교회(담임 변영익 목사)에서 개최한다. 회장 및 부회장 자격으로는 목사안수경력이 10년 이상되어야 하고, 남가주에서 5년 이상 목회한 담임 목회자로 제한한다고 교협은 밝혔다.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후보 제출서류는 26일까지 △이력서 △교단추천서 △목사안수증명서 △교회주보 △발

전기금을 교협에 제출해야 하고, 후보자 교협 발전기금으로는 회장 5000불, 수석부회장 3000불, 부회장 1000불 등이 있다. 교단 및 지역연합회 공천위원회 구성은 27일 오후 2시에 교협에서 있으며, 공천위원회 모임은 31일 오전 10시에 교협에서 열린다. 이번 정기총회 등록비는 20불이다. 문의: 323-735-3000(교협) 토마스 멩 기자

## 닉 부이치치, “무서운 것은 마음의 장애...” 밀알의 밤 대성황

한인들에게 용기와 소망 전해



기도하고 있는 닉 부이치치

팔, 다리 없는 희망전도사 닉 부이치치(사지 없는 인생(Life without Limbs) 대표)가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영선 목사)에서 주최하는 ‘밀알의 밤’에서 한인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전했다.

1일 저녁 주님의영광교회에서,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2011년 제 14회 밀알의 밤’에서 강연을 펼친 닉 부이치치는 “마음의 장애를 극복하길 바란다.”라며 “누구에게나 고통과 고난은 주어지지않 희망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이치치는 “돈이나 교육 등이 행복이나 평안을 줄 수 없다.”면서 “행복은 사랑으로부터 온다. 오늘 하루가 의미 있는 하루가 되게 하라.”

고 말했다. 팔, 다리가 없기에 절망에 빠졌던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없이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희망과 행복이 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에겐 육체의 장애가 있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장애라고 생각한다. 팔다리가 없어도 잘살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믿고 있다. 장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파괴된 가정에서 사는 것보다 행복하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특히 그는 10대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 마약 등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을 찾지 말고 영원한 가치가 담겨 있는 기쁨을 찾기를 바란다.”라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토마스 멩 기자

## 떠나는 청년들 “배타적인 교회는 싫어요”

15세 이상의 젊은 기독교인 중 4명의 3명 꼴로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이 최근 미국의 현실이다. 왜일까? 최근 미 교회 전문 리서치 기관인 바나 그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유는 크게 6가지로 나뉜다. 최근 바나 그룹은 청소년, 청년, 청소년 담임 목회자, 담임 목회자, 부모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를 분석 발표했다.

1) 조사결과 밝혀진 첫째 이유는 교회가 “과잉보호적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들을 인터뷰한 결과 응답자의 25%가 “기독교인들은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나쁜 것인듯 과민반응을 보인다”고 했다. 22%는 교회가 현실세계의 문제를 무시하고, 영화나 음악, 비디오 게임 등의 부정적 영향을 지나친 염려를 보인다고 답했다.

2) 대부분의 청년들은 경험적 신앙이 없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분의 1 가량이 “교회는 지루하다”고 답했다. 청소년 시절에 교회를 출석했던

응답자 중 20%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 생활에서 빠져 있었다고 답했다.

3) 또 조사가 의하면 청년들은 교회가 과학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싫다고 답했다. 청년 중 3분의 1 이상이 “기독교인들은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양 행동한다”고 답했다

며 4분의 1은 “기독교는 비 과학적”이라고 답했다. 4) 어떤 이들은 교회가 성(性)에 대해 너무 간단하거나 혹은 너무 판단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답했다. 청년, 청소년 기독교인들 중 17%가 “자신들이 실수했는데 교회에서 판단 받는 느낌이 있었다”고 답했다. 천주

교를 믿는 청년 가운데에는 5명 중 2명 꼴로 “교회에서 출산 제한이나 성에 대한 가르침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답했다.

5) 조사가 밝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다섯번째 이유는 많은 청년들이 기독교의 배타성에 대해 고민한다는 것이다. 청년, 청소년 기독교 장 고민하는 문제를 교회에서 물어볼 수 없을 것 같다고 답했고, 23%가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 “상당한 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바나 그룹 데이빗 키나맨 회장은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 출판책 ‘당신은 나를 잃었다: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다시 생각하게 되나?’(You Lost Me: Why Young Christians are Leaving Church and Rethinking Church)’에서 “아마도 이런 이유 중 하나는 교회가 전통적인 청년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바나 그룹도 “이같은 조사결과와는 현 시대 청년들이 최근 30여년 간 변화된 사회적 영적 기술적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키나맨 회장은 “통계자료에 지나친 영향을 받아 젊은 세대로 교회의 초점을 옮기는 대변화를 시도하기보다 “다세대 관계”를 쌓으려는 노력과 지속적인 환경의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권나라 기자

## 北 김정일 장손 김한솔이 기독교인?

SNS 종교란에 ‘기타 기독교 교파’ 라고 기재

최근 페이스북 등 SNS에 의해 김정일 장손이자 김정남의 아들인 김한솔의 정체가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그가 자신의 종교를 ‘기타 기독교 교파(Christian-other)’라 표기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김한솔이 SNS ‘마이페이스’에 표기한 ‘기타 기독교 교파’란 그리스정교회나 개신교의 일부 교파, 또는 교파에 구애받지 않는 크리스천을 의미할 때 쓰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김한솔은 또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하는 장신구를 걸고 있었으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종교상 권리를 옹호(Pro-Religious Rights)’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인을 찾는 목적의 또 다른 웹사이트 ‘아시아인드닷컴’에 가입할 때는 자신을 ‘불가지론자(신의 존재 유무를 모르겠다)’로 밝혔다. 이대웅 기자



김정일 장남 김한솔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김한솔은 SNS 활동이 화제가 되자 지난 1일 페이스북 계정을 단절했다.

### 최근 바나그룹 조사 결과 발표 교회 떠나는 6가지 이유

1) 조사결과 밝혀진 첫째 이유는 교회가 “과잉보호적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들을 인터뷰한 결과 응답자의 25%가 “기독교인들은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나쁜 것인듯 과민반응을 보인다”고 했다. 22%는 교회가 현실세계의 문제를 무시하고, 영화나 음악, 비디오 게임 등의 부정적 영향을 지나친 염려를 보인다고 답했다.

2) 대부분의 청년들은 경험적 신앙이 없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분의 1 가량이 “교회는 지루하다”고 답했다. 청소년 시절에 교회를 출석했던

응답자 중 20%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 생활에서 빠져 있었다고 답했다.

권나라 기자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무료 877-580-2424  
전화 323-582-2424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www.easy2424.com

**crover GREEN HOME INNOVATION** **친환경 미래 에너지 크로버** **엔프렌LED가 당신의 눈을 선명하고 환하게 밝혀 드립니다**

**추천의 글**  
LED 확대경 램프를 추천합니다  
새로 개발된 LED 확대경 램프를 얼마전에 어느 분의 소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눈이 부시지 않아 눈을 보호해 주고 피곤치않게 도와주며, 전력도 덜 소모하며, 열도 나지 않아 참으로 친환경적인 새로운 램프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글자마저 확대해서 선명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므로 참으로 실용적입니다. 램프를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번 고려하여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2011년 9월 20일  
박희민 목사  
\*\*\* 수익금의 일부는 선교에 쓰여집니다.

LED 확대경 램프  
LED 램프/ 눈부심 방지 커버  
초대형 비구면 다초점 렌즈  
보는 각도와 상관없이 선명하게 왜곡없이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여 피로감소에 효과적입니다.  
눈낮이, 방향 각도 조절부

● LTK-1600WIDE ▲  
● LTK-1500K ▲  
● LTK-1100L ▲  
● LED 확대경 램프 ▶

Los Angeles \* 정스백화점 (213) 389-1111 \* 김스전기 (213) 386-4882  
Fullerton \* 나눔 홈쇼핑 (714) 515-3408  
Torrance \* Good 네이비스 (310) 326-6666  
Las Vegas \* SKY-N 홈쇼핑 (702) 370-3366

더 자세한 정보는 본사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www.crovergreen.com** **제품상담 및 대리점 문의** **crover 323-588-7277**  
info@crovergreen.com  
2605 S. Santa Fe Ave.  
Vernon, CA 90058



# 미주 갈멜산 조성근 목사 “큰 복은 주님 인정받는 것”

### 3차 미주 갈멜산 기도성회 열려



조성근 목사

미주 갈멜산 기도성회가 한인타운 67에 위치한 로얄빌딩에서 열렸다. 이번 기도회는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3차로 열린 기도성회로 조성근 목사(갈멜산 금식기도원 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 GST대표)가 말씀을 전했다.

지난 9월 27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기도회에서 조성근 목사는 4일 집회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사람”이라며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목사는 “복의 개념은 많다는 것으로 풍요를 상징한다. 또 복은 한 마디로 유익에 대한 것을 말하고 나에게 유익되고 좋아야 한다. 성경은 고난도 나에게 복이 있다고 한다”라며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예기치 않은 일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게 한다. 가장 큰 복은 주님이 우리

를 인정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목사는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며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가르신다. 신앙은 그날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다. 육상경기가 할 때 골 라인을 보고 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또 조 목사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형통이다.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왜 기도가 안 이뤄지지, 라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주님이 뜻이 있겠지, 하는 생각은 못하는 것이 문제다”며 “형통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사정을 아셔서 바른길로 이끄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목사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주야로 곱씹으며 떠오르게 하는 것이 목상이다”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고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 갈멜산 금식기도원 담임으로 사역하고 있는 조성근 목사의 4차 미주 갈멜산 기도성회는 오는 11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문의 : 213-514-0039

토마스 맹 기자  
thomas@chdaily.com

## 굿네이버스 USA, ANC온누리교회와 사랑나눔 음악회 연다



국제구호개발NGO 굿네이버스 USA(회장 David Strand)는 ANC온

### 다양한 장르 음악을 들 수 있는 기회

누리교회(담임 유진소 목사)와 함께 12일 저녁 7시45분부터 ANC온누리교회 본당에서 기아와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아동들을 위한 ‘사랑나눔음악회’를 개최한다.

크리스찬 문화사역로 뮤지컬 연출, 연극 연출, 솔로, 지휘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장진영씨의 감독으로 ANC온누리교회 연합성가대(대장 김영호)가 오케스트라, 금관 5중주, 우리가락 선교회(대표 지윤자) 등의 선율에 맞춰 다양한 곡들을 연주할 예정이다.

본 음악회를 위해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CCM가수 조수아 씨가 특별 출연하여 또하나의열매를바라시며,

감사해요 등 유명한 찬양곡을 부르며 해외빈곤아동들에 대한 실상을 전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락선교회의 국악 찬양과 Patrice M. Ford 흑인여성 솔리스트가 흑인영가를 부르는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ANC 온누리교회 담임 유진소 목사는 “사랑은 나눔 때 진짜 사랑이 되는 것이다. 이번 사랑나눔 콘서트를 통해 아프리카의 극심한 재난과 그 가난 속에 고통 받는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랑의 손길을 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고, 굿네이버스 USA 오은주 대표는 “실

력있는 음악가들이 모여 아프리카를 위한 음악회를 개최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이다. 많이 오셔서 좋은 음악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음악회를 협찬하는 비전 800의 한영우 팀장은 “이번 공연은 참여 관객 한 명당 \$5를 비전 800에서 적립해 극심한 가뭄으로 죽어가는 동아프리카의 아동들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것이다. 함께 자리 하는 것으로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한다고 전했다.

공연문의(ANC온누리교회 818-834-7000, 굿네이버스 USA:877-499-9898)

토마스 맹 기자



▶ 남가주 북가주 연합 여성 메시아 찬양예배가 30일 저녁에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렸다.

## 남·북가주 연합 여성 메시아 찬양예배 열려

남가주 북가주 연합 여성 메시아 찬양예배가 30일 저녁 7시30분에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찬양예배는 사랑 여성 합창단과 남가주 메시아 여성 합창단, 그리고 북가주 메시아 여성 합창단이 연합해서 웅장한 메시아가 전곡으로 연주됐다. 말씀은 신승훈 목사와 위성교 목사가 전했다.

토마스 맹 기자  
thomas@chdaily.com

### LA ORT 취업전문 직업대학

[ 연방정부 학력공인, 이민국 SEVIS 인정 ]

▶ 영어 과정 학비, 교재비 전액 무료, 시민권, 영주권, 저소득층 유지자격자

다양한 직업교육 8-12개월  
자격증 보조금 지급  
고수입 알찬 직업 추천

1. 메디칼 오피스 매니저먼트 학사취득, 건축설계, 의사 보조, 약사 보조  
2. 비즈니스 매니저먼트 학사취득,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그래픽, 포토샵  
3. 유헤싱 E-30 발급, 방분류자 BI, R2를 학생비자 F-1로 변경가능  
4. 유헤싱은 LA ORT 졸업 후 워크퍼밋 소싱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줌

상담: 플라워 박  
130년 역사

대표전화 (323) 556-5386  
Cell. (213) 434-8128

6435 Wilshire Bl, LA, CA 90048 (5층) (월서+La Jolla, 버스 20번)

### 소망소사이어티 영어편지무료해석 서비스

커뮤니티 봉사차원으로 시작

커뮤니티 봉사차원에서 시작하는 이 서비스는 초기이민자들이 영어 편지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편지해석을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등 이러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했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소망소사이어티는 “9월 2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지금까지 14명이 서비스를 요청해 담당한 문서들에 대한 해결을 도와드렸다”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어편지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 또한 소망소사이어티에서 주장하는 웰에이징의 한 방법임을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에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봉사자 실비아 안씨가, 둘째, 넷째 수요일에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조셉 리씨가 사무실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

문의 : 562-977-4580(사무실), 714-469-3553(실비아 안)  
토마스 맹 기자  
thomas@chdaily.com

소망소사이어티(유분자 이사장)에서 영어편지무료해석 서비스를 시작했다.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현,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조요한 편집국장 : 토마스 맹 광고국장 : 이민규  
지사명 :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 (213) 739-0403  
팩스 : (718) 228-9506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A, CA 90005

###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736-6696 제시카

전화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122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 제3회 이민신학 심포지엄

## 2011 3rd Symposium of Immigration Theology

### 주제: 복합문화속의 목회 리더십

◆ 공동주최: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중기박사) 이민신학연구소(소장: 오상철 박사)  
◆ 대상: 이민목회자 및 사모, 선교사, 신학생, 평신도 지도자  
◆ 주제: 복합문화속의 목회 리더십  
◆ 일시: 2011년 10월 10일(월, 6:00 pm ~ 9:00 pm) ~ 11일(화, 9:00 am ~ 9:00 pm)  
◆ 장소: **충현선교교회** (민중기 목사 사무) 전화: 818-549-9191  
◆ 등록비: 1인당 50불 (개척교회는 디스카운트가 있으니 주보를 가져오시기 바람)  
(Pay to the order of: The kait)  
◆ 교회주소: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 교회약도: http://www.choonghyun.org/web/info05.php  
◆ 등록처: 양경선 사무국장(213-255-1725), 박세현 총무(323-404-3147), 이민신학연구소(714-388-2107), 웹 등록: Thekait.com(이민신학연구소, 714-388-2107).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은 JJ그랜드 호텔(213-383-3000, 코리아타운)로 직접 예약 하시기 바람직 공망 및 숙소리뷰를 해드립니다.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민중기 박사)**  
**이민신학연구소 소장 (오상철 박사)**

#### 10월 10일(월) - 첫째 날

6:00 pm 저녁식사  
7:30 pm 개회예배  
• 사회: 오상철 박사 (이민신학연구소 소장)  
• 특별찬양: 레위 남성합창단 (단장: 박태영, 지휘: 권명규)  
8:00 pm - Welcoming Message 1: 민중기 박사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 Welcoming Message 2: 이순만 박사 (유니온 장로교 신학교 신학교 교수(VA), 미국 NCC 총회장)  
8:10 pm 주제 강연 (주제: 복합문화속의 목회리더십)  
• Keynote Address: 이화준 박사 (폴리신학교 교수, Theology and Ethics)  
8:40 pm 이민목회 견담회  
• 연사 4명이 출연하여 이민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 강사: 박세현 목사 (남가주 교협 총무), 원성택 (써든 캘리포니아 신학교), 조현영 목사 (큰빛교회)외 2인

#### 10월 11일(화) - 둘째 날

9:00 am 트랙 1: 복합문화의 이해 (복합문화의 의미를 규명)  
• 사회: 허동현 박사 (Grace Mission University 교수)  
• Presenter #1 민중기 박사 (충현선교교회 담임)  
• Presenter #2 문은영 교수 (콜레어문트 신학교, Ph.D과정)  
• Presenter #3 오정호 선교사 (워싱턴 선교사, 1.5세 사역자)  
• Respondent #1 전병철 박사 (포항공과대학교 철학이예배 담임)  
• Respondent #2 강성호 박사 (미주장로교회신학대학교 교수)  
• 찬양인도 및 귀즈: 양경선총사 (남가주 교협 사무국장), 홍성관 목사 (남가주 교협 회계)  
11:00 am 열린토론 Open Discussion (각 테이블 리더를 중심으로)

#### 심포지엄 순서

1:00 pm 트랙 2: 복합문화와 이민목회 리더십 (1세 및 2세 목회리더십)  
• 독창: 박정식 전도사 (LA 은혜한인교회)  
- Presenter #1 한기홍 목사 (LA, 은혜한인교회)  
- Presenter #2 조수아 박사 (2세 EM 사역자)  
- Presenter #3 진유철 목사 (나성 순복음교회)  
• Respondent #1 권상길 목사 (나성영락교회 교육부 총괄, 1.5세 사역자)  
• Respondent #2 김인태 박사 (베데스다 대학교 교무처장)  
• Respondent #3 최원정 박사 (TU대학 LA, 캠퍼스 학장)  
2:30 pm 열린 토론 Open Discussion (각 테이블 리더를 중심으로)  
3:45 pm 트랙3: 패널 디스커션 (이민목회 리더십 사례를 중심으로)  
• 사회: 한중수 박사 (얼비안 침례교회)  
- Panelist #1 박형은 목사 (중앙선교교회, 1.5세 사역자)  
- Panelist #2 박승광 목사 (후니쿠우 대표, 국제 코스타 상임이사)  
- Panelist #3 임준택 목사 (윌리엄 케리 대학 정교수)  
- Panelist #4 조재형 박사 (미주 칼리포 신학대학교 교수)  
- Panelist #5 김철갑 목사 (나성영락교회 영어대학부, 1.5세 사역자)  
5:00 pm 열린 토론 Open Discussion (연사들과 모든 참석자)  
7:00 pm • 찬양 및 축제 Praise & Celebration (이민목회자를 격려하고 존경하는 시간)  
• 특별찬양: 목사 장로 부부 찬양단 (단장: 김경대 목사, 지휘: 진중재 교수)  
• 특별연주: 충현선교교회 국악팀 (번역수 사물놀이패)



# '통영의 딸' 구출하고자... 촛불 들고 나선 청년들

## 신속자 씨 모녀 송환 촉구하는 서명운동 벌여

북한인권및개발법학회(LANK)·한국대학생포럼·북한인권학살연대·바른사회대학생연합·자유북한청년포럼 등 5개 대학생 단체가 1일 저녁 6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서명운동과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북한에 억류돼 있는 신속자 씨와 오규원·해원양 모녀의 송환을 UN에 촉구했다.

경남 통영 출신으로 독일의 간조사였던 신속자 씨는 지난 1985년 북한 공작요원의 꾀에 빠진 남편 오길남 박사(서울대)를 따라 북한에 들어갔다. 이후 1986년 오 박사는 신 씨의 권유로 홀로 북한을 탈출하게 됐고, 신 씨는 두 딸과 함께 요덕수용소에 수감됐다가 최근 병양 외곽의 통제구역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을 저녁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촛불집회에는 신 씨 모녀를 구출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졌고, 북한인권단체 대학생들은 손에 촛불을 들고 이들을 둘러쌌다. 북한인권및개발법학회의 인지연 대표는

"서울에 아직도 신 씨 모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북한정권의 미수에 잠시 흔들렸던 지식인의 비극을 외면하면 안 되며, 작은 힘이 하나하나 합치되면 UN에 청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독교사회책임 대표인 서경석 목사는 "신속자 씨 모녀 이야기만 들으면 울먹이게 된다"며 "만약 촛불집회를 매일 한다면 매일 나오겠다. 그렇게 해서 구출이 된다면 나는 얼마든지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길남 박사는 "고마움을 느낀다는 것 외에는 무슨 말을 하겠는가. 가슴이 울먹인다"며 말을 잊지 못했다. 촛불 집회의 참여자들에게 반박하여 감사를 전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달 27일부터 청계광장 일대에서 신 씨 모녀 송환을 UN에 촉구하는 촛불집회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협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태진 기자 북한인권단체의 대학생들은 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신속자 씨 모녀의 송환을 UN에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촛불집회를 열었다. ©신태진 기자

# 중국 단동복지병원 개원식, 영성수련회 열린다

## ▶ 10월26일부터 28일까지

중국 단동복지(기독교)병원 개원식과 영성수련회가 오는 10월28일과 10월26일부터 27일까지 중국 단동병원에서 각각 열린다.

영성 수련회 강사는 장동찬 목사(뉴저지 베다니 연합 감리교회)이며, 신청마감은 30일까지다. SAM care 박세록 국제대표는 본지에 지난 2000년 중국 단동복지병원 설립에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간증문으로 보내 왔다. 다음은 간증문 전문.

2000년 4월 처음 단동복지병원 개원식을 하고 압록강 강변에서 선상에배를 감격의 눈물 가운데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10년이 지난 후 이제 병원을 단동 시내 한 북판으로 이전하고 압록강 강변으로 훨씬 가까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 드립니다. 병원과 물댄동산 사역을 통하여 3500명(다수의 북한 환자 포함) 이상의 환자들을 진료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 없이 겪었던 현지 사람들의 핍박, 우리 내부에서 몇몇 사람들의 끊임 없는 질투와 분쟁, 사단의 역사들을 겪으면서 이제 제2의 병원을 개원하고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하심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역을 기뻐 받으신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1997년 압록강 상류 장백에서부터 압록강 하구까지 하루가 넘는 긴 여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버스를 탔습니다. 지금은 고속도로가 사방팔방으로 뚝려 편하고 빠르게 다닐 수 있지만, 그 때는 포장도 되지 않은 시골인데다 가름 길이 없어 지고 또 감을 질러 가기도

도 하였습니다. 말만 버스이지 사실은 미친 말을 탄 것처럼 사람들을 흔들며 내니, 의뢰에 무관한 한 봉사자는 나에 귀속 말로 "장로님,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흔들려도 우리 속에 있는 오장육부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까" 하고 격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 과장하여 표현하면 "버스를 타고 가는 시간보다 밀고 가는 시간이 더 길었다"라고 말 할 정도로 연속되는 타이어 펑크, 기계 고장을 수 없이 겪으며, 치과 의사가 사람 치료하려고 가지고 온 기계들로 자동차 밑에 휘어진 부분들을 고쳐 가며 끝 없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두 끼를 연달아 굶었고 이제는 날피 마저 어두워지니 이제는 배가 고프고 지쳐서 모두 기운을 잃게 되었습니다.

한 사역자가 장백을 떠날 때에 시골 구석에서 군밤을 샅았습니다. 시골에서 누가 군밤을 사 먹는 사람이 많지 않아 식으면 굶고 또 굶고 하여 솥덩이처럼 까맣게 타 버린 군밤이었습니다. 아무도 쳐다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버스 안에서 찬송도 하고, 간중도하면서 은혜를 서로 나누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치 힘 빠진 개구리들처럼 늘어져 있을 때 한 봉사자가 그 타 버린 군밤을 우리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깜깜한 버스 안에서 별래가 있는데, 썩은 밤인지 분간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한 톨 먹고, 두 톨 먹고...누군가가 찬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좋은 하나님, 좋은 하나님, 참 좋은 나의 하나님" 그 분이 감격하여 울기 시작하고 모두들 찬송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바쁘기로 치면 두 번 째 가려면 모두 서러워할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타 버린 밤 톨 몇 개를 먹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나는 그 속에서 천국을 보았습니다. 장차

가 뒤를러듯이 배고픔도, 미친 말을 탄 것처럼 뒹기는 것도 눈 녹듯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음식을 먹어야 배고픔이 없어지고, 물을 마셔야만 목마른 것이 사라지는 줄 알았지만, 먹지 않고도, 마시지 않고도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예수님이 여기도 함께 계시며 인도하셨구나" "여기가 어딴지?"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안동"이라 불렀으니 단동이 어딘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단동!"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이곳에 병원을 다시 짓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렇게 단동복지병원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단동복지병원을 지난 11년 동안 그 험난한 과정을 지나면서 뺏기지 않고 살아 남는 것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오늘 중국은 모든 면에서 판 나라가 되어 있었고, 급속하게 발전하는 경제에 힘 입어 팽창하는 그들의 힘을 단동복지병원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을 포기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는 공지에 몰렸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도 두렵기만 하던, 우리를 속이기만 하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 특히 단동 시의 구위 관리들이 오히려 철수를 촉구하며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라며 자기들이 직접 나서서 이전을 위한 장소도 찾아 주고 복잡한 모든 행정적인 과정을 직접 맡아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 공회 지정병원으로 만들어 주고 이전 할 장소도 직접 나서서 찾아주는 믿지 못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결정하였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공사에 문의한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려고 검토 없이 결정을 하였을 때에 산호

제 임마누엘장로교회에서는 그 교회 건축을 총 책임지고 6개월 만에 완성하게 한 김황식 장로를 보내주었습니다.

중국 병원장의 소개로 좋은 건설회사를 만나게 되었고, 공사위원회의 철저한 관리에 중국 사람들도 놀랄 정도로 공사는 빠른 속도로 진행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의 개인적인 욕심과 시기로 한바탕 고난을 치르고 있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역을 기쁘게 받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함께하신다는 확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능력을 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는 공사 현장 한가운데 서서 구슬 땀을 흘리며 중국 공사 자들을 격려하는 우리 공사 팀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120 평방미터의 예배실 가운데 섰을 때에 가슴이 벅차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곳이 멀지 않은 장래에 정식 교회가 되고 시내 한 북판에 자리 잡은 선교센터가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생명체입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힘을 느끼며 전율을 느낍니다. 이런 뜨거움과 감격이 없는 사람은 사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성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성은 오늘도 나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새 힘을 주십니다.

SAM care 국제대표 박세록  
문의 : 213-381-1347(SAM care 미주본부 최상영 본부장), 714-515-5433  
토마스 맹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진절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유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제,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알립니다!!**

2011 처음 메디케어 A와 B를 받으시는 분

GUARDIAN ANGELS INSURANCE AGENCY 수호천사보험

CA LIC #0G67882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HMO)

- 치과 ● 처방약 ● 한방침술 ● 안경
- 해외여행시 응급비용지원
- 헬스클럽 멤버십 ● 교통편 제공 등

무료상담 : 213-503-6897 (폴선)

**교회 행사 용품을 한곳에서**

배너 포스터

교회, 임직패 감사패, 트로피 명찰 일체

교회 기념티을

동부사인&트로피

간판부 Tel. (626) 965-6997  
행사용품부 Tel. (626) 810-2621  
19241 E. Colima Road, Rowland Heights, CA 91748

PGM Professionals for Global Missions 세계전문인선교회 www.pgmusa.org

# PGM 선교신학포럼

선교 신학자님들과 목사님들을 모시고 PGM 선교신학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 Here & Now 선교
- \* 전문인 선교
- \* 디아스포라 선교
- \* 교회 중심의 선교

Oct. 18(화) ~ Oct. 19(수), 2011  
**필라안디옥교회**

1998년 설립된 PGM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금까지 많은 부흥과 성장을 거듭하였습니다.

- PGM이 추구하는 핵심가치 -

- ① 디아스포라 선교
- ② 평신도 전문인 선교
- ③ Here & Now 선교
- ④ 교회중심의 선교

위에 대한 정확한 신학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여러선교신학자님들과 목사님들을 모시고 PGM선교신학포럼을 가지고자 합니다.

**포럼 참석자**

- 오상철 박사 (미주이민선학연구소장)
- 김성훈 선교사 (Consultant of Diaspora Ministries in Wycliffe Europe and UK, Korean Research Institute for Diapora, Oxford)
- 송상철 목사 (아들란타 새한장로교회 담임)
- 유영기 목사 (LALA성북부교회)
- 마원석 박사 (Executive Director, David Yonggi Cho Research Tutor of Global Christianity, Oxford Centre for Mission Studies)
- 김정환 선교사 (SON Ministry 대표)
- 이은무 박사 (KIMNET 사무총장, 전 인도네시아 선교사, 전 GP 국제 대표)
- 유승관 목사 (한국 사랑의 교회 세계선교부 사무총장)
- 최재선 선교사 (경제학박사, C국 전문인선교사)
- 이형석 목사 (타코마중영장로교회 담임목사)
- 정민용 목사 (Covenant Fellowship Church 담임목사)
- 오정호 선교사 (Director, Korean Church Relations of Wycliffe Bible Translators)

\* 이번 포럼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PGM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pgm@pgmusa.org / Tel. 610-397-0484)  
\* 포럼기간동안 PGM정책이사회와 KIMNET 정기총회, 필라안디옥교회 17주년 기념성회가 함께 열리게 됩니다.



기고문

# New Spirit Movement의 깃발을 물리며..

박용덕

New Spirit Movement 대표  
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



오늘날 모든 세계가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들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 먹으므로 그 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나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고통의 땅에서 살게 된 이후 사람들의 시련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하나님은 인류에게 잃어버린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까지 내어 주셨건만, 아직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영적 정체성의 혼란으로 정신과 육체를 사탄에게 빼앗긴 채 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영적, 도덕적 타락의 거센 물결 앞에 정교도의 나라인 미국은 물론 모든 나라와 열방들이 죄악의 수렁 속에 점점 더 깊이 빠져 들고 있습니다.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법과 같은 악법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있기에, 그 악법에 의해 우리는 물론 우리의 자녀들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앞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조차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며 교회도 함께 타락되어 가고 쇠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할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길은 이 길 밖에 없기에 이제 New Spirit Movement의 깃발을 올리자 하는 것입니다.

New Spirit Movement란 한마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성을 회복하시는 "거룩성 회복 운동"입니다. 그리고 거룩성 회복운동의 기본은 1)성경으로 돌아가는 성경 회복운동이요 2)성령으로 충만한 세계를 만드는 성령 회복운동이요 3)모든 국민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사는 성결 회복운동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New Spirit Movement는 3대 거룩성 회복운동(3H Movement)으로 첫째 Holy Life Movement, 둘째 Holy Family Movement, 셋째 Holy Nations Movement를 추구하여 궁극적으로는 이 땅을 Holy World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좀 더 세분화 하면 첫째 Holy Life Movement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시는 운동입니다. 개인이 거룩한 생각을 통해 삶에 거룩이 나타나게 하되, 나아가 이웃들에게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운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Holy Family Movement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성령

이 지배하는 가정으로 부부는 물론 부자간에 거룩한 관계를 만들어 사회에 아름다운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는 운동입니다.

셋째로 Holy Nations Movement 우리가 사는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므로 거룩한 문화 조성에 힘쓰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 리더를 만들되 노동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풍토를 만들어 열방에 영향을 주는 운동을 말합니다.

특히 오늘날 세상에 임하는 여러 가지 재난과 고통과 지극히 큰 환난 등을 보면서 사람들은 정치적 실패와 경제적 불황, 환경적 변화 등을 말하고 있지만, 진정한 문제는 보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 있음을 바로 인식하여, 사람이나 자연이나 환경이 보이는 육의 세계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좌우됨을 인식하고 거룩성 회복 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New Spirit Movement에 참여하여 거룩성 회복운동을 통한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여 사탄을 에덴 같게, 광야를 하나님의 동산 같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사51:3) 하나님의 뜻을 이룰 "New Spirit Movement 깃발"을 올리는데 함께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 [선교 현장] 파리에서 (선교통신)

패션, 유행의 도시 파리에서 드립니다. 파리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나와 밀려드는 사람들 틈에 끼어 바우어 탄 파리의 지하철은 좁고 깨끗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들어진지 100년이 넘었다는 지하철은 막 출근하는 사람들로 만원이었습니다. 그 순간 뒷 호주머니 무언가 스치는 듯 하여 만져보니 어느 틈에 지갑을 뺏아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뒤에 있던 청년에게 지갑을 내어 놓으라고 하자 웃으며 밑을 가리키는데 그곳에 지갑이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지갑 속에는 모든 신분증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선교회 사무실에 와서 보니 어느 틈에 지갑 속에 있던 50 유로의 현금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파리의 첫날은 이렇게 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보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그 시간들은 참으로 감격스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래전 먼저 도착했던 선교사들의 발방을들로 일구어 놓은 사역의 현장들은 사하라의 뜨거운 열기조차도 막을 수가 없는 열정적인 복음과 선교의 현장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두 번째, 차드는 프랑스의 영향권에 있는 나라로 사회주의 국가의 정책적인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든 분야에서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교단을 통해서, 학교는 직접적으로 교사의 파견을 통해서, 그리고 병원 역시 정부의 통제 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 안정은 눈으로 보기에 많이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

았으며 경제적인 활동은 나라가 사회주의 영향권에 있어서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번째, 사역적 부분에서, 차드는 200여 종족들끼리도 교류가 거의 없는 상황이며 따라서 서로 다른 부족에게로 전도하는 것은 이방인의 선교적 접근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모슬렘의 공격적인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차드에서의 교회의 개척과 교육을 통한 크리스천 리더의 육성, 그리고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위한 의료시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이 있으며 급속히 진행되어가는 사막화는 그들의 생명을 물론 모든 문명까지도 위협하는 물의 부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역의 필요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제 저희 부부를 불러주시는 부르심에 따라 사역이 이루어져 차드에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해주시요.

1. language: 프랑스어를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잘 습득하여 차드 사람과 잘 통하도록,
2. 선교사언어훈련학교: 함께 하는 많은 선교사 훈련생들과의 효과적인 교제를 위해서
3. Vision: 차드를 조신한 결과를 통하여 차드를 향한 vision을 잘 정리하도록,
4. Health: 하나님의 부르심에 준비된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도록,
5. Prayer: 차드 사역에 후원으로 함께 하는 동역자들이 날마다 함께 기도하며 호흡을 잘 맞추도록,

9월 18일 2011년. 권홍량, 임현진 드립니다. 909-569-2258

## 미주 CGNTV 후원의 밤... '24시간 열방을 향해'

140여명 참석...닉부이치치, 희망의 메시지 전해



선교방송 미주 CGNTV 후원의 밤 행사가 지난 30일 오후 6시30분에 옥스퍼드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후원감사의 밤에는 140여명이 참석했으며, 선교방송의 의미와 가치를 나누고, 팔 다리가 없어도 전 세계에서 비전과 소망을 전하고 있는 닉 부이치치가 용기의 메시지를 전하는 등 찬양과 기도 및 CGNTV를 위

해 중보하고 후원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CGNTV 미주후원 회장 임덕순 장로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24시간 동안 전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CGNTV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닉 부이치치를 초청해 감사하다."라며 "앞으로 세상에 소외된 자들을 품고 전세계에 복음을 전하

는 일에 쉬지 않고 나가길 원한다."고 말했다. CGNTV는 지난 2005년 정식 개국했으며 현재 미국(LA, 뉴욕), 일본(도쿄, 오사카), 대만(타이베이), 태국(방콕) 등 세계 8개 권역 174개국에 24시간 방송되고 있다. 토마스 맵 기자 thomas@chdaily.com

① 차량 구입하시면서 다운페이먼트가 없으세요?  
② 무슨 차종을 선택할까 고민이세요?  
③ 낮은 페이먼트 원하세요?  
④ 크레딧이 나쁘세요?

**지금 전화 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PH Puente Hills Hyundai** 11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용자, 차종 설정, 저렴한 페이먼트

**FLEET MANAGER 찰리 정**  
☎ 213-276-8959  
e-mail : usajyk@gmail.com

# GOLDEN STATE UNIVERSITY

## School of Oriental Medicine

### 골든 스테이트 한의과 대학

**"전인 치유 사명을 기도와 말씀, 예술, 건강교육을 통하여!"**

**가주 한의사 면허 취득반**

주정부, 한의보드 정식 인가 학교

- 파격적인 장학금 제도 (유자격자 50%까지)
- 최고의 교수진, 최고의 교육환경 (대학 2년 수료 또는 동등한 학력 소지자)

**평생 사회 교육원 운영**

누구나 한의를 쉽게 배울수 있는 기회!

한의학 과목 수강시 Credit 인정! (유자격자)  
(한의학 기초반, 진단학 교실, 침구반, 본초교실, 지압, 가공)

**중. 장기 선교사 훈련반**

양·한방 진단, 영양치료, 경락치료, 운동 물리 치료

단기 의료 선교 팀 보조사 훈련  
각 교회 의료 선교 사역팀 훈련 의뢰 받습니다.

**특혜 1. 일대일 임상지도 2. 취업, 선교지원 3. 자녀관리**

9047.E. Florence Ave. #L. Downey, CA 90240  
website : <http://goldenstateuniv.us>  
입학문의 : (562) 622-3368 / [gsu\\_inc77@yahoo.com](mailto:gsu_inc77@yahoo.com)

총장 : 김성일 한의학 박사, 여목사      후원 : Holy 의료 교육 선교회, Holy 한방 병원

**대학 병원 진료 쿠폰**

**무료진료 상담, 치료비 50%, 유능한 임상 전문의**

진/료/과/목	부인과 : 생리불순, 경년기 증세, 비만
	남성과 : 전립선, 스트레스성 분노, 비만
	노인과 : 치매 예방 보약, 골다공증 예방 보약, 몸 시림 보약
	청소년과 : 여드름, 비만, 위염
	유소아과 : 발육 성장 촉진, 감기 예방, 비만예방

**예약 전화 : 562-965-5112**



# 하늘문 열린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 3:7-13

장재효  
서울성교회 목사



7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기록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것이 가라사대 8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9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10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1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2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13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리적으로 빌라델비아는 터키 서남부에 있는 사데 교회에서 동남부로 100리쯤 떨어진 곳에 큰 산 중턱 아래쪽 평지에 BC150년 전에 필라델푸스라는 사람이 로마 원로원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한 도시였습니다. 전략적으로 골짜기마다 있는 도시의 중심지로 건설을 했고 포도와 목축업이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전략적 도시로 만들었는데 헬라 문명이 급속도로 파급되어 이 지역이 헬라문명권으로 엄청난 문화 선진(先進)의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유대인들이 세력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유대교라는 율법적 교리를 강조하면서 그곳에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를 괴롭혀 왔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도 중에 누가 세웠는지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짐작하기는 정통한 진리를 깨달은 한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가서 살게 되면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닐까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사도나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복음의 체계적인 교훈도 가르치지 어려웠을 것이지만 성령을 충만히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뜨거운 기도를 통하여 불같은 역사는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이미 유대교로 자리 잡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기도 하셨고, 구원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그들이 하나님은 자기들의 독점물인 것처럼 여기고 성령이 이끄러신 양생할 하는 사람들을 헛되고 잘못되었다고 해서 핍박함으로써 많은 순교자가 생겨나게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본문 7절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대하신 믿음의 사람이며 이스라엘 2대왕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이상적으로 잘 다스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예루살렘 성을 다윗을 통해 건립하셨습니다. 이 다윗은

구약시대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전권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맡기셨는데 그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목자이기도 했습니다.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절대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분의 왕국에서 절대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는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하늘나라가 개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7:55-60에서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했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의 영안을 뜨게 해주셔서 하늘나라 문을 열어 그가 순교하면 맞이하시기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 일어서 계신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늘나라 문이 열릴 때 구원 얻은 성도가 천국으로 직행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와 같이 문이 열려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 교회 다니는 모든 신도들의 믿음이 예수님 보시기에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이 온전히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의 교훈을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자리잡은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고 그들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1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예수라는 말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을 배반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할지언정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8절에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라고 한 말은 어느 유능한 목사님이 세워 가르친 교회가 아니라 어느 평신도에 의해 가꾸어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9절에는 유대교의 집단이 다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나라 사람들도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도 덩달아 유대인 행세를 하려고 했던 사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늘소망 가꾸자고 믿음 생활하는 때 순간마다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을 불꽃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신 예수님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건전한 생각과 충성스러운 생활 신앙으로 예수님 앞에 책망이 아니라 기대와 신뢰를 모을 수 있도록 진실한 신앙 인격자로 믿음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데 교회를 두고 예수님은 "네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심판의 칼을 들고 찾아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환란 속에서 믿음을 지켜 사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감동을 받은 자들 몇 사람을 너희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박해당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로 알게 하시겠다고 본문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정절을 지켰을 때 승리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는 하나님이며 육으로는 사람과 같은 분으로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셔서 고난과 멸시를 당하고 죽임당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이 한마디는 그리스도로서의 소임을 완성하셨다는 선언이었습니다. 10절에서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 이같이 행하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지고 가는 길에서 어떠한 환란과 핍박, 죽음이 오더라도 두려움으로 기피하거나 변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다른 시험이 없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어지는데 이때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지고, 변절자도 생겨나고, 믿음이 없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기도 할 것이라고 다니엘서, 에스겔, 스가랴, 데살로니가후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천국에 갈 믿음을 가졌고 면류관 또한 받을 상태이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둥은 그 건물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가볍게 빼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기둥은 빌라델비아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교회도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위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인과 새 예루살렘(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보배로운 주인공이 되게 하는 사인, 예수님의 새 이름인 만왕의 왕의 사인이 기록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 편지는 빌라델비아 교회에만 보낸 편지로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 모든 교회들에게 보낸시 공적 편지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멸망할 자리에서 불러내어서 모아 놓은 곳입니다. 즉 하늘나라 가기 위한 정거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모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는 티켓을 가진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죄악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불러내셔서 하늘나라 가기 위한 자격을 갖추

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즘 교회들 중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보다 세속적인 기대감을 부추기고 마치 무속신앙과 같은 방식으로 가르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 소망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6:1-7에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기하급수적 부흥이 이루어졌을 때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평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수집사 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직책과 직분이 생겨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어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권세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 얻게 합니다. 그리고 구원 얻었거나 구원 얻기 위하여 영적 지도에 소망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을 에베레시 아(교회)라고 해서 성도 상호간에 신령한 교제를 나누면서 구제, 봉사, 전도하는 일에 목회를 깊이 이해하고 적극 협력 봉사하라고 세워진 것이 교회의 봉사직제입니다.

장로교는 목사나 장로가 똑같은 치리권을 가졌다고 장로교 헌법에 되어있지만 단 하나, 목사에게는 강도(講道)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라도 목사에게는 양 때중 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중직으로 세움 받은 장로라도 하늘나라 가기까지 목자로 부터 영적 지도를 계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교회 제직들 사이에 신학적 신앙노선이 일치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영적 체질신앙이 일치하게 되고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협력하는 일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그 교회는 진리와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급속도로 부흥, 성장하면서 그리스도나라 확장에 크게 기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여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교회를 위해 하늘 문을 열어 놓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신문설교 선교

- 한국** CBS TV 수요일 오후 8:40 / CTS TV 금요일 오전 6:00 /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문
- 미국** 워싱턴 D.C. CBS TV 화요일 오후 6:00, 금요일 오후 8:00  
워싱턴 D.C. COX TV 화요일 오후 6:00, 금요일 오후 12:00  
토요일 오전 7:00, 주일 오후 10:30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3:30, (동부) 오후 6:30  
토요일 (서부) 오후 6:00, (동부) 오후 9:00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후 2:30  
기독일보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 설교

장재효 목사 : 성은교회 당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정중경 총회장. 선목회 회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전국기도원총연합회 총재.

### 2011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 - 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을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1년 10월 10일 (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 통신포로도 할 수 있음

**본교 소개**

-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ccusa.com / icc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월서 + 웨스턴)

## 남기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42차 정기총회 소집 공고

남기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 42차 정기총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 시: 2011년 11월 7일(월) 오전 10시
- 장 소: **벤델장로교회** (담임 변영익 목사 시무)  
857 S. La Brea Ave., Los Angeles, CA 90036  
(323) 937-1733 www.bedel.org
- 등록비: \$20 (필수)
- 회 비: \$120이상 (성도1인당 1불씩)

■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후보 추천 및 신칭

● 회장, 수석부회장 자격  
1) 목사안수경력 10년 이상, 남가주 목회 5년 이상인 담임목회자 (제153호)  
2) 후보자 본인 발령금: ●회장 \$5,000 ●수석부회장 \$3,000 ●부회장 \$1,000

●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후보 제출서류  
1) 이력서 2) 교단추천서 3) 목사안수증명서 4) 교회주부 5) 발전기금(에시어스체크)


● 교단 및 지역연합회 공천위원회 선정(교단추천이 12명 이상 될 경우 추첨)  
▷ 일시: 2011년 10월 27일(목) 오후 2시 ▷ 장소: 남가주 교회 회의실

● 공천위원회 모임  
▷ 일시: 2011년 10월 31일(월) 오전 10시  
▷ 장소: 남가주 교회 회의실  
1) 공천위원: 교협 회장단 추천 6명, 이사회추천 6명, 교단 및 지역연합회 추천 12명  
2) 교단 및 지역연합회 추천 공천위원 제출서류: (1) 교단장 및 지역연합회장 추천 공천위원 명단 2명 (2) 전화번호

입후보자들은 제출서류를 2011년 10월 26일(수) 오후 5시까지 남기주기독교교회협의회 사무실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주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 문의전화: 총무 박세현 목사 (323)404-3147  
사무국장 양경선 목사 (213)255-1725



**남기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 회 장: 민중기 목사  
■ 수석부회장: 변영익 목사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Tel: (323)735-3000 Fax: (323)735-3111  
E-mail: churches3000@gmail.com www.theckc.org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p><b>갈릴리선교회</b> 담임: 한천영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youth 오전 11:00 토요일합석회 오전 6: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 (323) 735-6412 / www.gmchurch.com</p>	<p><b>감사한인교회</b> 담임: 김영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영아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p>	<p><b>갯스월연합교회</b> 담임: 이희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예배 오전 11:00 904 E D St. Ontario, CA91764 T. (909) 268-4279 / www.gwachurch.org</p>	<p><b>그레이스웨이브교회</b> 담임: 송규성 목사 주일예배 오후 12:30 영어예배 오전 10:40 주일학교 오전 9:30 제자훈련 오전 9:30 1340 N. Candlewood St. Anaheim, CA 92801 T. (714) 699-0210</p>
<p><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 진유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예배 저녁 7:30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b>나성열린문교회</b> 담임: 박현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p>	<p><b>나성한인감리교회</b> 담임: 남강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Youth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20 3부 EM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4부 청년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 (213) 365-6191 / F. (213) 365-6291</p>	<p><b>남가주광염교회</b> 담임: 정우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성경공부: (화)오후 7:30, 1부 오전 5:30 2부 오전 6:30 (수) 오전 10:30 (토) 오전 6:30 4009 Wilshire Bl. #100-B, LA, CA 90010 T. (213) 598-0191</p>
<p><b>남가주동신교회</b> 담임: 손병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p>	<p><b>남가주리디머교회</b> 담임: 김요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 (213) 215-8523 / www.scrdm.org</p>	<p><b>남가주명성교회</b> 담임: 정해진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5:30 중고등, 유년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11 S. Mariposa Ave., LA, CA 90004 T. (213) 383-9182, F. (213) 251-9182</p>	<p><b>남가주빛내리교회</b> 담임: 박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새벽예배: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영어(EM)예배: 오후 2:30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p>
<p><b>뉴월드임마누엘교회</b> 담임: 김승원 목사, MARY KM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3부 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4055 Schaefer Ave., Chino, CA91710 T. (909) 993-4842(교회), (909) 993-2157(상담)</p>	<p><b>대양장로교회</b> 담임: 류담열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1325 12th Ave LA, CA90019 T. (323) 731-9819 / C. (213) 440-0125</p>	<p><b>대흥장로교회</b> 담임: 권영국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00 2부예배(영아) 오전 9:45 중/고 주일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주일예배 오전 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www.dkpc.org</p>	<p><b>들로스교회</b> 담임: 서보천 목사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오전 11:00) 주일예배(9시, 2부 11시) 금요성경기도회: 오후 8:00 중고등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청년토론회: 오후 6:00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www.douloschurch.com</p>
<p><b>드림교회</b> 담임: 이성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p>	<p><b>리브레이크커뮤니티교회</b> 담임: 강진중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1069 S. La Brea Ave. LA, CA90019 T. (323) 930-1088 / F. (323) 930-0788</p>	<p><b>미주비전교회</b> 담임: 이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45 영어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Alpha 저녁 7:3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6:00토)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92802 T. (714) 999-9900/http://www.visionccc.org</p>	<p><b>미주양곡교회</b> 담임: 지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 오전 5: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519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F. (213) 380-9378</p>
<p><b>베델한인교회</b> 담임: 손인식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예배)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금 새벽 5:30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p>	<p><b>삼성장로교회</b> 담임: 신원규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20 2부예배 오전 9:40 4부예배 오후 12:50 5600 Carboncanyon Rd, Brea, CA 92823 T. (714) 524-2029 / F. (714) 524-8844</p>	<p><b>소중한사람들</b> 대표: 김수철 목사 천안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더운터너 47 Crocker St) 1부가리예배 오전 7:00 2부센터예배 오전 9:30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p>	<p><b>새생명오아시스교회</b> 담임: 김일형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EM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2939</p>
<p><b>세계성경장로교회</b> 담임: 강신권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2:15 2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45, 토 6:00 4부예배 오후 12:15 주일학교 오전 10:30 5부예배 오후 2:00 오후 12:15, 2:0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2298(Fax)</p>	<p><b>세리토스장로교회</b> 담임: 김한요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예배 오후 12:15 2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45, 토 6:00 4부예배 오후 12:15 주일학교 오전 10:30 5부예배 오후 2:00 오후 12:15, 2:00 11841 E. 178th St, Artesia, CA90701 T. (562) 860-5451 / www.ilovecpc.org</p>	<p><b>시온성중양교회</b> 담임: 박성규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995-2868 / F. (714) 995-0169</p>	<p><b>씨니사이드교회</b> 담임: 조인수 목사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 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영어예배 오전 10시 1183 S. Hoover Stree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p>
<p><b>아름다운교회</b> 담임: 고승희 목사 1부예배 오전 10:00 3부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p>	<p><b>안디옥장로교회</b> 담임: 지윤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오후예배 오후 1:45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3부영어 오후 12:30 금요찬양 오후 8:00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 (818) 249-2871 / F. (818) 249-0516</p>	<p><b>얼바인침례교회</b> 담임: 한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4부예배 오후 1:3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45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p>	<p><b>영광빛복음교회</b> 담임: 우대권 목사 주일예배 오전 1:30분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주일학교 오후 1:30분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p>
<p><b>영성장로교회</b> 담임: 김혜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p>	<p><b>월서크리스천교회</b> 담임: 염규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2부EM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4-4272</p>	<p><b>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b> 담임: 남성수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 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92683 T. (714) 893-1652 / www.kccroc.com</p>	<p><b>요셉선교회</b> 담임: 정상호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2728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90006 T. (213) 245-4090</p>
<p><b>은혜한인교회</b> 담임: 한기홍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p>	<p><b>인랜드교회</b> 담임: 박신철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1101 Glen Avenu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p>	<p><b>임마누엘선교회</b> 담임: 류종길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7:30(토) 1818 S. Western Ave., suite200, LA, CA 90006 T. (323) 766-9922</p>	<p><b>주님세운교회</b> 담임: 박성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p>
<p><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 신승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 2부예배 오전 10:2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b>주님찬양교회</b> 담임: 장준근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 (310) 940-1646 / F. (714) 397-2875</p>	<p><b>청운교회</b> 담임: 이명수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토) 4465 Melrose Ave., LA, CA 90029 T. (323) 667-9920</p>	<p><b>충현선교회</b> 담임: 민종기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p>
<p><b>코너스톤교회</b> 담임: 이종용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p>	<p><b>파사데나장로교회</b> 담임: 성현경 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토) 오전 6:00 한국어 오전 10시(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45 영도 12:30 분당 금요찬양 오후 8:00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p>	<p><b>함께하는교회</b> 담임: 최성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토) 오전 6:00 14515 Valley View Ave, Suite T, Santa Fe Springs, CA 90670 T. (714) 236-0256</p>	<p><b>SL 임마누엘선교회</b> 담임: 백지영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3:00 찬양예배와 기도예배 오후 7:00 SOLCOMON UNIVERSITY 총장: 백지영 박사(Ph.D) 3921 Wilshire Blvd, #404-408 LA, CA 90010 T. (213) 381-7755 / F. (213) 380-7755</p>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 Inc.
메디케어

현재 5 후원

We know Medicare

2012년 당신의 메디케어 신청에 관한 정보

안녕하십니까?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 INC의 대표 DAVID KANG 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시니어분들의 성원으로 한인 시니어들에게 메디케어에 대한 도움을 드리게
되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저희 HANA는 65세 이상의 시니어와 65세 이하
이지만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보다 나은 MEDICARE 보험의 혜택을 위해 메디케어
플랜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또한 교육 되어진 그리고 자격증을 갖춘 소수의
에이전트로 현재 LA, BUENA PARK, TORRANCE, SOUTH BAY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명은 많은 한인 노인 이민자들에게 도움되는 회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회사, 하나님이 주인되신 회사입니다. 한인 시니어들의 건강 보험에 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 INC 에서는

1. 65세 한인 시니어의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자격을 갖추신 분에게(시민권자, 영주권자, 메디컬 세금 10년 보고). 메디케어는 65
세 되는 생일 달 그 효력이 발생하는 연방 정부 건강 보험입니다. 65세 생일 달 3
개월 전까지 메디케어 카드를 받지 못하셨다면 HANA가 여러분의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2. EXTRA HELP PLAN 의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엑스트라 헬프 플랜이란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는 시니어들을 위한 처방약
보조프로그램입니다.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지만 자산이 \$25,260 (부부), 독신의 경우
\$12,260 이하이거나 부부 소득이 한달 \$1225에서 \$1669 사인인 경우, 독신의 경우
\$908 에서 \$1225 사이의 소득을 가진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처방약
보조프로그램입니다.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메디칼 수혜자와 동등하게
처방약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의 재산과 몇가지 조건에 합당하여야 합니다).

3. MEDICARE SAVING PROGRAM (MEDICARE
PREMIUM ASSISTENT PROGRAM) 의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메디케어 수혜자 중에서 메디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저소득인 시니어를 위해 메디케어
파트 A 와 B 보험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개인의 소득/달 과 자산에 따라
지원받는 수준이 조금씩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개인 소득이 독신의 경우 한달 \$908.00
부부 \$1226 이거나 최대 독신 \$1228 부부 1655 까지 메디케어 세이빙 프로그램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단 개인의 자산과 몇가지 조건에 합당하여야 합니다).

4. MEDICARE PART D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메디케어 파트 D는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분은 반드시 신청 하여야 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 되며 그 벌금은 메디케어 파트 D 보험료에 별도로
평생 부과 됩니다.

5. MEDICARE PART C 프로그램의 선택을 도와 드립니다.

메디케어 파트 C 는 연방정부에서 운영 관리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메디케어
수혜자가 매달 지불하는 메디케어 보험료와 메디칼 세금을 정부에서 승인 한
건강보험 회사나 일반회사에 메디케어 수혜자의 의료혜택을 이관 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건강보험 회사는 고객 유치를 위해 원래의 메디케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80% 보험 보장의 부족분 20%를 보충하고 각각의 프로그램에 따라
보다 나은 의료 혜택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치과, 안경 등등) 메디케어 수혜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추신 에이전트를 통하여 (SHIP 시험 통과 여부 그리고
보험제공회사의 자격시험 통과 여부)를 확인 하신 후 각각의 개인에게 가장 적당한
플랜을 선정 하여야 합니다.

6. 메디케어 파트 C 보험 가입시 메디케어 수혜자가 확인하여야
될 사항

- ▷ 보험에이전트의 자격 여부, AMERICA HEALTH INSURANCE PROGRAM .
시험 통과 확인, 각 보험회사의 자격시험 통과 확인, 반드시 계약서에 보험
에이전트 본인의 이름과 회사 코드기입을 요구하십시오.)
▷ 건강보험(의료비에 대한 보장)회사의 규모와 역사 혹은 CREDIT RATE를 확인
하시면 플랜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예: 회사의 역사 100년 혹은 미국전국
NETWORK 를 가지고 있는지 등등)

- ▷ 현재 본인이 복용하는 약의 보험보장과 본인부담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담당 주치의가 보험플랜 서비스 제공자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현재의 주치의가 소속된 보험 플랜을 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 병원선택은 어떤 병원이 보험플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CLA, USC, GS, SV등등)
▷ 보험플랜의 가입시 일차병원 방문시 환자가 내어야 될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부터 \$15 까지 플랜에 따라 다양 합니다.)
▷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의 가입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을 확인하십시오.
(말이 아닌 시료상의 증명)
▷ 추가 혜택 치과의 경우 그 보험 치료의 보장 범위에 대하여 정확하게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 HMO 플랜의 가입시 타주의 친지 방문, 혹은 여행중에 그 보험이 보장 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 보조 플랜 가입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TRA HELP, MEDICARE SAVING PROGRAM 가입여부 확인).
▷ 메디칼과 메디케어를 가진 분들은 2011년10월달 부터 발생하는 메디칼 보험의
의료 혜택의 축소로 인해 병원 방문이 년 7회로 제한되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의 가입시 어떤 플랜으로 가입하여야 기존과 똑같은 혜택 (병원방문의 제한이
없고, 본인부담금 없는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2012년 변화되는 메디케어 플랜과 메디칼에 따라 보험수혜자가
숙지하여야 될 사항

- ▷ 2012년 메디케어 파트C 플랜은 각회사에 따라 그 보험의 보장범위가 확대되거나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플랜은 그 보험 플랜 자체가 없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 회사로 부터 편지를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시거나 보험 에이전트에게 연락 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중 캘리포니아 전지역을 보장하는 PPO 플랜은 2012년
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PPO 플랜에 가입 하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에이전트에게 연락 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메디칼 건강보험 혜택 축소 : 2011년 10월 1일부터 메디칼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1년에 병원이나 의사 방문이 7회로 제한이 됩니다. (단, 의사의 판단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은 의사의 허가서가 있으면 7회 방문에서 면제됨) 또한
2011년 11월 1일 부터는 병원이나 의사 방문시 \$5를 본인이 부담 하셔야 됩니다.
병원 입원시 1일 \$100 최대 \$200 까지 지불 하여야 합니다. 처방약 구입시 본인
부담금이 최저 \$3-\$5 까지 인상 되었습니다. 감기약 가침약 건가보조약품의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CALIFORNIA STATE BUDGET 2011-2012, 제안안) 이
예산안 축소는 메디칼 과 메디케어 동시 수혜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 메디칼 만 가지신분 : 반드시 각 카운티에서 보내주시는 보험 관련 서류에 본인의
지정 의사를 정하여야 합니다. (예 LA COUNTY, LA CARE 혹은 HEALTH NET) .
지정 의사를 정하지 않을 경우 다니시던 의사가 진료를 거부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 메디칼과 메디케어를 수혜자도 7회 병원방문의 제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메디칼에서 지정하는 보험 프로그램에 가입하시거나 (LA CARE, OR HEALTH
NET) 혹은 메디케어 파트C (HMO OR PPO)프로그램에 가입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 메디칼과 메디케어 수혜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추신 에이전트와 회사를 통해 DSNP
에 가입 하시면 이전과 같이 병원방문의 제한없고 본인 부담금없으며 치료혜택과
안경, 그리고 의료기구등을 받을 수 있는 무료 추가하는 플랜이 있습니다.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S, INC 고객센터 1-855-386-3088 Fax, 213-386-3992

※ 토요일과 일요일은 예약하시면 상담합니다.

LA 사무실



PRESIDENT:
DAVID KANG Lic.#0F16211

Tel. 213-500-4563

3600 WILSHIRE BL #1620,
LA, CA 90010

\* DAVID KANG 이 월, 화, 수 근무합니다.

TORRANCE 사무실



DISRICT MANAGER:
SARA IM Lic.#0F07269

Tel. 310-702-7006

20695 WESTERN AVE #240,
TORRANCE, CA 90501

\* DAVID KANG 이 목요일 근무합니다.



PRESIDENT:
DAVID KANG Lic.#0F16211

Tel. 213-500-4563

2350 W SEPULVEDA BLVD #A,
TORRANCE, CA 90501

\* DAVID KANG 이 금요일 근무합니다.

BUENA PARK 사무실



DISTRICT MANAGER:
MI YOUNG HONG Lic.#0672051

Tel. 714-715-6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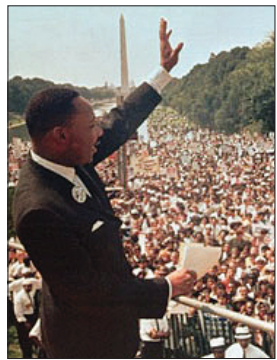
6011 ORANGETHROPE AVE #A,
BUENA PARK, CA 90620

저희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S, INC 광고의 무단복제는 금합니다. 상기의 정보는 특정 상품의 광고가 아닌 시니어 건강보험에 전반적인 교육자료입니다.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S, INC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 아이린 위협에 취소된 킹 목사 기념관 개관, 최종 결정

### 1995년 흑인인권 위한 대규모 걷기 시위 16주년 기념일에



48년 전 마틴 루터 킹 Jr. 목사가 "나는 꿈이 있습니다" 연설을 하는 장면

허리케인 아이린으로 연기됐던 세계적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Jr. 목사의 기념관 개관식이 10월 16일 오전 9시 웨스트 포트

맥 파크에서 개최된다. 킹 목사 연설 48주년 기념일인 8월 28일 개관식 예정일을 연기한 주최측은 지난달 1995년 미국흑인인권을 위한 백만명 걷기 시위 16주년을 기념하는 10월 16일로 개관일을 변경했음을 알렸다. 이 기념관에는 이전 대통령들이 지정한 대로 국가 영웅이자 인권운동가로서의 킹 목사의 면모를 기념하고 드러내는 여러 전시관이 포함됐다. 총 4에이커에 달하는 기념관은 타이달 바신 지역 북서쪽에서 루즈벨트 기념관 인접 지역까지 자리잡고 있으며, 킹 목사 기념관을 포함 링컨 기념관부터 제퍼슨 기념관까지 리더십의 유산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설계됐다.

기념 공원 중심에는 약 30피트에 달하는 킹 목사 동상이 세워진다. 붉은 의자를 나타내듯 팔짱을 끼고, 양복과 넥타이를 맨 모습의 킹 목사는 48년 전 'I Have A Dream' 설교 당시 킹 목사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그 날을 꿈꾸던 킹 목사의 정신을 기린 공원 전체를 끼고 도는 폭포수도 설치된다. 킹 목사의 기념관은 1980년 그가 활동했던 알파 파 일파 페러너티의 몇몇 회원들에 의해 처음 제안됐으며, 이후 킹 목사의 미망인인 코레타 여사와 다른 이들이 합류하면서 1998년 최종 승인을 받았다.

권나라 기자

# 목회 노하우 모든 것 "한자리서 배웠다"

### 2011 목회자 비전세미나 성료, 전국각지서 45명 참석

동남부 최대교회로 미주 지역에서 건강한 성장 모델로 꼽히는 애틀랜타연합장로교회(담임 정인수 목사)의 비전과 목회 노하우를 공유하는 '2011 목회자 비전세미나'가 지난 3일(월)부터 5일(수)까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45명의 목회자들은 첫날 교회 투어를 시작으로 교회론, 목양론, 목회자 비전 및 변화의 리더십, 가정 공동체, 팀사역, 새가족 사역, 선교, 예배, 교육 및 행정, 목회자와 위기관리 리더십, 여성사역, 설교 및 성령 목회 등의 강의를 통해 목회 노하우 A부터 Z까지를 속속들이 배웠다.

둘째 날인 4일 저녁 리더십을 주제로 강의한 정인수 목사는 "미주 한인교회는 구조적인 아픔이 많다. 목회자는 내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가와 자기 교회의 체제를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목회의 옷을 입어야 한다. 남들이 한다고 따라 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목회하라"고 말했다.

이어 정 목사는 영성과 현대성이 조화된 통전적 리더십, 독특한 자기 교회 DNA 세우기기, 스마트한 목회 리더십, 감동을 극복하는 리더십,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십, 전략적 목회 리더십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정 목사는 또 건강한 교회로 혁신되기 위한 목회 패러다임을 소개



2011 목회자 비전세미나

하며 "감성과 영성이 어우러진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 예배를 넘어서 갱신하라. 특별히 절기가 있을 때는 전통적 순서에 매이지 말고 과감히 변화 시도하라. 아버지의 남은 어머니들의 특성과 이와 관련된 영성을 보여 줄 수 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예배를 변화시킬 수 있다. 감성적 예배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 목사는 ▲평신도 사역 중심의 수평적인 교회 구조 ▲진정한 소그룹 중심의 공동체 ▲리더십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교회 ▲문화적 상관성을 세워 나가는 교회 ▲가정사역과 치유사역의 역량 강화 ▲리더십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정 목사는 또 건강한 교회로 혁신되기 위한 목회 패러다임을 소개

하며 "감성과 영성이 어우러진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 예배를 넘어서 갱신하라. 특별히 절기가 있을 때는 전통적 순서에 매이지 말고 과감히 변화 시도하라. 아버지의 남은 어머니들의 특성과 이와 관련된 영성을 보여 줄 수 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예배를 변화시킬 수 있다. 감성적 예배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 목사는 ▲평신도 사역 중심의 수평적인 교회 구조 ▲진정한 소그룹 중심의 공동체 ▲리더십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교회 ▲문화적 상관성을 세워 나가는 교회 ▲가정사역과 치유사역의 역량 강화 ▲리더십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강의를 마친 참석자들은 불신자 전도 프로그램 '생수의 강'을 주관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으며 마지막 날인 5일, SWOT 교회 분석법 통해 각 교회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요소를 진단, 건강한 목회 방향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김연덕 기자

# 기독교영화 커레이저스 박스오피스 4위 기염

### 가족 소중함 다루며 기독교 가치관 심어



영화 커레이저스의 한 장면 ©Sherwood Pictures

기독교 영화인 '커레이저스(Courageous)'가 개봉 4일 째인 3일(월) 총 9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박스오피스 4위를 꿰찼다. 지난 주 개봉한 신작 4편 중 최고 성적이다.

주말 사이 영화를 본 관객들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간만에 본 가장

좋은 영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 같은 영화가 될 것" "놀랍다. 그저 놀라 9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박스오피스 4위를 꿰찼다. 지난 주 개봉한 신작 4편 중 최고 성적이다.

'커레이저스'는 4명의 경찰관이 주인공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정작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그리며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다. 이 중 한 가정의 비극적인 사고로 전개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 남성, 아버지, 남편 상을 제시하고 있다.

'커레이저스'는 전국 1161개 극장에서 개봉하는 다소 소규모 개봉이었지만 첫날 31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기염을 토했다.

알바니 셔우드필름교회에서 만든 셔우드픽처스에서 제작한 이번 기독교 영화의 제작비는 100만 달러 가량이었다. 50만 달러의 제작비로 330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한 기독교영화 '파이어프루프' 역시 셔우드픽처스 제작사의 작품이었다.

커레이저스 뒤를 잇는 신작 영화는 인셉션에서 열연한 조던 고든 레빗과 그린호넷에 출연한 세트 로젠이 주연한 코미디 드라마 '50/50', 서스펜스 스릴러 '드림 하우스', 로맨틱 드라마 'What's your Number?'가 있다.

권나라 기자

# 처드 도킨스, 기독교 변증학자와 토론 거부

'만들어진 신(The God Illusion)'의 저자 리처드 도킨스(Dawkins)가 기독교 변증학자와의 토론을 또다시 거절한 데 따라 무신론자 진영으로 부터도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도킨스는 저술 활동뿐 아니라 강연, 단체 활동 등을 통해서 오늘날 어떤 무신론자들보다 더욱 급진적인 무신론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런 그에게 미국의 기독교 변증학자인 윌리엄 크레이그(Craig) 박사는 신의 존재와 신앙의 합리성에 대해 토론하기를 '만들어진 신' 발간 이후 요청했고, 도킨스는 이를 거절한 바 있다. 현재 도킨스의 출신지인 영국에서 '합리적인 신앙(Reasonable Faith)'을 주제로 키퍼러스 투어를 계획 중인 크레이그 박사는 최근 또다시 도킨스에 토론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같았다. "그(크레이그 박사는) 단지 직업적 토론가일뿐"이라는 냉담한 반응과 함께였다. 크레이그 박사는 텔북신학교 철학 교수이자 기독교 변증학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학자로 소개되고 있으며, 바트 에만(Ehrman), 리처드 테일러(Taylor), 샘 해리스(Harris), 크리스토퍼 히친스(Hitchens) 등 다른 유명 무신론자들과도 토론해 왔다. 한편 도킨스의 거듭된 토론 거부야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전 세계에서

이슈화되자 무신론자 진영은 실망을 드러내는 한편, 비난의 표시까지도 내비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 중 한 명인 위세스터 칼리지 철학 강사이자 무신론자인 대니얼 케임은 도킨스에게 직접 편지를 써 "저명한 기독교 신학자와의 토론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의 경력에 있어서 막대한 누락이며 당신이 겁쟁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밖에 안될 것"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한편, 크레이그 박사는 자신은 여전히 도킨스와 토론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토론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손현정 기자

# PCUSA 산하 CTS, 역대 최다 한인학생 등록



콜롬비아신학대학원 전경

미국장로교단(PCUSA)의 대표적인 신학대 가운데 하나인 조지아 디케이터 소재 콜롬비아신학대학(CTS, 총장 스티브 헤이너) 2011년 가을학기 등록을 마감한 가운데, 역대 최다(最多)의 한인학생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CTS 학생처에 따르면 이번 가을학기 신입생 가운데 한인 학생은 목회학 석사과정 김위민 씨 등 모두 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1명 가운데 재미동포 한인 2세인 조슈아 김

외국인 학생에도 장학금 혜택 등 문화개방 지역한인교계, 한국과 네트워크 강화 원인

씨를 제외하고, 대부분 한국에서 유학을 온 유학생이거나 이민 1세들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 방문교수로 2명, 방문 연구원으로 1명 등 이번 가을에 CTS 캠퍼스에 새로운 한국인들은 모두 14명이며, 가족까지 포함하면 40명 안팎의 한인들이 CTS 커뮤니티에 들어왔다 CTS 한미목회연구소 웹사이드(www.webkam.org)를 통해 밝혔다. 목회학 석사(M.Div) 과정에는

14명의 절반 가량인 6명이 등록했으며, 그 중 이창희 집사(연합장로교회)는 오는 10월 니카라과에 장기 선교사로 파송 될 예정이다. 실천신학 석사(MAPT) 과정에는 4명, 신학석사(MATS) 과정에는 1명이 각각 입학했고, 유니온신학대학에서 특별학생으로 입학한 경우도 있었다. 방문교수로는 한국장로교신학대학 이규민 교수, 숭실대학교 조은식 교수가 안식년차 방문교수로왔으며, 몽골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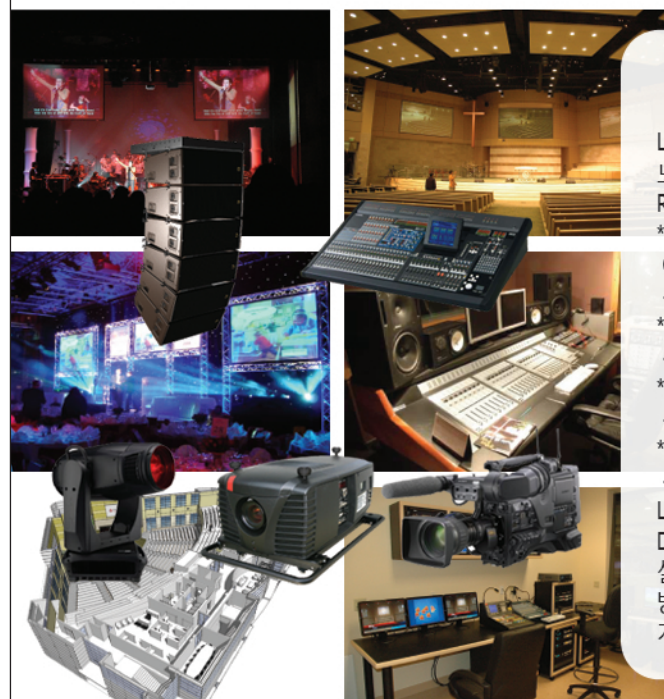
부총장 출신의 이용규 선교사(박사)가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가을학기부터 1년간 CTS에 머문다. CTS는 그간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에게만 장학금 등의 혜택과 함께 입학의 문호를 개방했으나, 최근 2년 전부터 리더십의 변화로 개방과 세계화를 기치로 내걸고 외국 국적의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장학금 혜택과 학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박현희 기자

# Solution for Tomorrow



## Customized Solution



Laservision World는 20년간 쌓은 전문 음향, 영상, 조명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Yamaha, Sony, Sanyo, Digico, Barco, EAW, JBL, Da-Lite, Martin, Robe 등 200여 개의 공식 딜러십 보유 및 장비판매를 하고 있으며 \*건설부터 시스템 설계, 시스템 시공, 감리, 교육 및 정기점검까지 One Stop Solution을 제공하는

- Total System Integration
- \*최신 HD 레코딩 장비를 갖춘 넓고 조용한 Recording Studio를 기반으로 한
- Music Production
- \*최신 HD 영상 장비를 갖춘
- Digital Film/Video Production
- \*최신 장비로 무장한 라이브 음향 영상 조명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 Live Production 까지

Laservision World에 오시면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전문 음향, 영상, 조명의 Total Digital Custom Solution을 제공 해드립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매월 실무 세미나를 실시 하고 있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교육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나 방문 해 주십시오. 최고의 기술력을 지닌 레이저비전의 엔지니어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을 계획 또는 진행하시고 계시다면 멀티미디어의 업그레이드를 원하신다면 오랜 경험과 실력의 저희 Laservision World를 만나 보십시오. 저희가 여러분의 환경과 필요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예산에 맞는 Customized solution을 제공하겠습니다. 저희의 경험과 우수성이 여러분의 멀티미디어 활용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Laservision World만이 드리는 다음과 같은 장점

1. 풍부한 방송 System 시공 및 컨설팅 경험이 있습니다.
2. 20년 동안 미주 한인 사회와 함께 자라온 안정된 회사입니다.
3. 음향 / 영상 / 조명에 관한 토탈 디자인 서비스를 통해 경비와 시간을 최소화시켜드립니다.
4. Supervising System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System Integration을 진행합니다.
5. 유지관리 비용을 절약하여 드립니다.
6. 에너지 절약 디자인을 최우선시 합니다.
7. 시공 후 Training과 Service 를 통해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8. 일에 필요한 License와 책임에 관한 Insurance & Liability를 갖고 있습니다.

Laservision World가 제공해 드리는 또 다른 서비스

- Pro Audio / Video / Lighting Online Store : [www.avlgear.com](http://www.avlgear.com)
- 우리들의 문화 네트워크 Culture and Event Network : [www.wori.com](http://www.wori.com)



Laservision World / Laservision Structure & Engineering Inc. / [wwori.com](http://wwori.com) / [AVLgear.com](http://AVLgear.com)  
196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Tel: 323-730-5050 Fax: 323-383-0257 contact@laservisionworld.com





# < 2011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 가능)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TEL : 562-926-1023, 4691 / FAX : 562-926-1025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www.ptsa.edu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TEL : 310-793-2285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USA

**국제개혁대학교·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I-20 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TEL : 213-381-0081, FAX : 213-381-0010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

TEL : 213-381-7007, 213-248-0170  
520 S. La Fayette Park Pl. Ste. #103, L.A., CA 90057

**국제기독교교육대학**  
International Education College

유아교육대학 개강 2011년 10월 10일  
(2주마다 입학 가능) www.icecusa.com  
TEL. 213-368-0316 /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일서 + 웨스턴)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Unit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TEL : 714-879-7952 / FAX : 714-879-7952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월드크리스천대학교**  
World Christian University

본교 대학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  
대학원 (M.Div) 과정  
통신학부, 목사후보생 모집 및 교육  
유학비자발행 (방문비자무료변경)

TEL: (323) 734-0227 FAX: (323) 734-0053  
2716 Ellendale PL. Los Angeles, CA.90007

**캘리포니아두란노대학교·신학대학원**  
목회학 · 신학 · 철학 박사  
California Tyrannos University

BPPE Ed.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목사 | TEL: (213) 507 - 1933  
1008. S. Kingsley Dr LA, CA. 90006

**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YUIN UNIVERSITY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 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TEL : 213-663-8640 FAX. 213-384-7898  
2007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I.S Ko.Studies

T: 626-584-5574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http://korean.fuller.edu

**미주대한신학대학**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TEL : 323-731-9819  
1325 12th Ave. LA, CA 90018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TEL : 213-389-8987  
4055 Wilshire Blvd. 6419 L.A., CA 90010

**미주개혁신학대학교**  
I-20 발급

2966 Wilshire Blvd. 2nd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 213-736-6500 / Fax #: 213-736-6504

**아메리칸신학대학및대학원**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TEL : (323) 733-7565 , (818)535-9036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http://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Mission Christian University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TEL : (562) 869-7497 www.mcuniversity.org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마·이·톡·크·비·비  
**iTalkBB** 로컬/장거리/국제전화 무제한

중앙일보/ENHance (www.koreabbb.com) [조인스아메리카 선정]  
"2년연속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 차원이 다른 집전화

# 아이토크비비를 즐겨라~!

30일  
환불 보장!

**왜 아이토크비비 인가?**

- 1 저렴한 요금
- 2 무제한 통화
- 3 다양한 부가서비스
- 4 한국어 고객 서비스
- 5 30일 환불 보장 제도

Global Unlimited Plan \$24.99/월 월별

글로벌 플랜 \$24.99/월

- 미국·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전화 통화
- 한국 포함 27개국 국제전화 무제한 통화

무료!

My Korea Number 마이코리아넘버\*\*  
한국 070 전호도 필요없다!  
한국 전화 번호 제공

+  
iTalkGlobal 아이토크글로벌  
전화카드가 필요없다!  
월당 500원

핸드폰에서도 국제전화 가능(매월 500분 제공)

비싼 AT&T, Verizon 집전화 아직도 쓰고 계세요?

## 지금 아이토크비비로 바꾸면, 최대 \$100 드려요!

크레딧 행사기간  
2011년 10월 17일까지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아이토크비비**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om](http://www.Korea.iTalkBB.com) 에서 확인해주세요

\*새고객 보상제도-1년 계약 플랜 가입자에 한합니다. 계약기간내에 서비스를 해지하시는 경우 \$69.99의 위약금 및 프로모션 기간동안 할인 및 보상 받으신 중 금액이 합산되어 부과 됩니다. 고객 보상금액은 아이토크비비 가입하신 분한테 따라 최대 \$100까지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 지급은 기존 전화 회사와의 요금 청구서를 제출하신 후에 합니다. \*\*우리 부가서비스 아이토크비비(아이토크비비)를 사용할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요금과 청구 되거나 취소 조치될 수 있습니다. 본 보상 제도의 최종 해석은 iTalk Global Communication, Inc. 에 있습니다.

\*환불을 신청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 사이트에서는 환불요금을 위해 청구서 4년 전연하고 간단한 온라인 크레딧 카드 결제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800.875.8318** 고객센터  
고객상담시간 :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지금 Facebook.com/iTalkBBkorea를 방문해서  
아이토크비비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받으세요.

**아이토크비비 사업자 모집**  
모집대상 : 인터넷전화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 또는 기존 매점대 신규 아이팀을 추가하고자 하시는 분

사업자 상담전화: **703.348.7544**  
통화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뉴저지 교협 제25회 정기총회 개최

## 유재도 목사, 부회장 박상천 목사 취임



제25회 정기총회를 개최한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회장에 유재도 목사(땅끝교회 담임)가, 부회장에 박상천 목사(소망교회 담임)가 취임했다.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는 10월 3일 오후 5시 땅끝교회(담임 유재도 목사)에서 제25회 정기총회를 가졌다.

1부 예배에서는 이우용 목사(증경회장)가 '좋은 일꾼(담전 4:6-16)' 설교를 전했다. 이목사는 "뉴저지 교협이 조금만 더 연합하고 힘쓰면 발전하고 큰 일을 할텐데, 하나님 보

시기에 좋은 일꾼이 되도록 다시 한 번 교협을 통해 연합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고 설교했다. 그는 "하나님 귀한 역사를 통해 뉴저지 교협 모든 목사님들을 여기까지 보내셨는데,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부 정기총회에서는 회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유재도 목사가 회장에 임명됐다. 부회장은 박상천 목사와 이종해 장로(베다니

감리교회)가 임명됐다. 이와 함께 이날 발표된 임원진은 ▲총무 이상조 목사 ▲서기 이성일 목사 ▲회계 서병용 장로(명림교회) ▲감사 이은혜 목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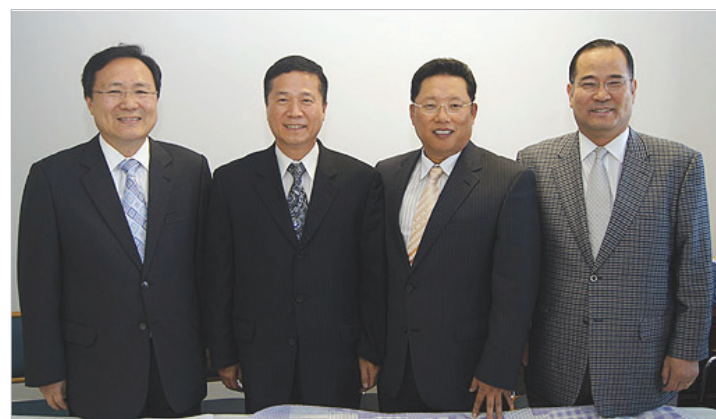
유재도 목사는 "교회 연합을 바라지만 잘 되지 않는다. 그 중에 열심이 있는 여러분들이 참여해주는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전도와 사외 봉사에서 있어서는 교회들이 연합해야 함을 강조했다. 존 스토틀 목사의 말과 엡 1:23을 인용해 "그리스도의 몸 아래 우리가 다 구성원인데, 1년간 연합하고 함께 하는 일에 여러분과 함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일 ▶호산나 전도대회가 명실공히 전도대회로서 빛을 발하는 일 ▶매월 성경 연구 모임 및 목회 나눔 시간 마련 ▶목회자, 교회 지도자들과 바울 행적지 방문 ▶뉴저지교협 역사편찬 등 5개 사업에 주력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이와 함께 회비를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부활절과 호산나전도대회가 종교파적인 연합 행사가 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뉴저지교협은 이번 회기 미지급된 지출 항목을 빠른 시일 내로 지불하고 회비를 적극적으로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재정을 정상화하는데 힘쓰기로 했다.

윤주이 기자 jooiee@chdaily.com

# 뉴욕 교협 선관위 후보기호 추첨

## 기호1번 양승호 목사, 2번 노기송 목사



왼쪽부터 김중훈, 이재덕, 양승호, 노기송 목사/사진=이민넷 제공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원기 목사) 제38회기 임원 임후보자들의 기호가 정해졌다. 뉴욕교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대령 현영갑 목사)는 30일 뉴욕교협 회의실에서 후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후보추첨식을 가졌으며 추첨에 따라 회장후보 1번은 양승호 목사(뉴욕순복음연합교회), 2번은 노기송 목사(새에루살렘교회)로 정해졌다.

부회장 임후보자 기호추첨 결과 1번은 이재덕 목사(뉴욕사랑의교회), 2번은 김중훈 목사(예일장로교회)로 정해졌다. 뉴욕교협 임후보자 기호추첨이 완료됨에 따라 제38회기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운동 또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선관위가 밝히고 있는 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범위는 △홍보유엔 2회 △홍보E-mail 3회 △인문인터뷰 1회 등이며 공개 후원 및 지원 모임은 절대 가려져 안 된다. 언론들이 참여하는 소견

발표회에도 반드시 참석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다.

또 이날 후보자 소견발표회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당초 계획은 언론을 중심으로 한 언론토론회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선관위가 주관하는 소견발표회로 형식이 변경됐다.

'뉴욕교협 선관위 주관 후보자 공개 소견발표회'를 정식 명칭으로 진행되는 이번 발표회에는 일반 목회자와 성도들도 자유롭게 참관해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정한 진행을 위해 객관성을 가진 인물에게 사회를 맡기로 했다.

소견발표회는 17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며 장소는 효신교회로 잠정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선관위가 현재 추가적으로 장소를 모색하고 있다.

김대원 기자 jooiee@chdaily.com

# 효신교회, 미래세대 집중교육 선언

## 어른에서 어린이 중심으로 교육방침 대폭변경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성도들 앞에서 밝히고 있는 문석호 목사

최근 교육문화관을 완공한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가 앞으로 어른중심의 교육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어린이 중심의 교육으로 교회의 교육방침을 대폭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이민교회가 겪고 있는 2세 교육 등 미래세대 교육부재 문제를 교회 차원에서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어 주목된다.

효신교회가 정한 방침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앞으로 주일날 교회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커리큘럼에 따라 장시간 교육을 받고 또래의 아이들과 친교를 나누게 된다. 또 교사들 또

한 대폭 교육을 강화해 어린이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나서게 된다. 또 교회중직자들은 교회의 안전진실 보수에 책임을 맡아 어린이들이 말씀공부와 놀이를 교회에서 동시에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효신교회는 어린이 카페 운영 등 교회구조도 어린이를 배려해 변경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문석호 목사는 3일 "이러한 계획을 성도들 앞에서 공지한 상황"이라며 "어른 중심에서 어린이 중심으로 교회의 교육 분위기를 바꾸는 것에 집중해 달라고 이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효신

교회의 결정에는 신학대학 교수로서 오랫동안 몸담아 온 문석호 목사의 깊은 철학이 담겨져 있다. 지금까지 어린이들은 교회에서 어린이예배만 드린 후 주일예배를 마친 부모들에 의해 집으로 가기 바빴던 것이 사실이다. 효신교회는 이런 부분까지도 부모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성도들에게 알리고 "어른 모임 중심에서 아이들 모임 중심으로 변화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한 상태다. 문석호 목사는 "교회의 모든 신경을 교육에 집중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며 "여기에는 교사들의 헌신된 마음이 필요하고 많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은 말로만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할 때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석호 목사는 "2세 등 이민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전인교육의 기관이 없는 것이 이민교회에 당연하고 있는 과제"라며 "이러한 공교육을 교회가 많은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민교회가 세상교육을 회복하고 전인적인 교육을 회복하는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효신교회는 최근 교육문화관을 완공, 미래의 인재양성을 위한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과 선교의 일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 교육문화관을 통해 방과 후 학교, 한국학교 등을 운영해 2세와 청소년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한국의 가치를 알리는 교육이 이뤄진다.

김대원 기자 jooiee@chdaily.com

# 뉴욕교협 사랑의찬양제 개최

## 8개 봉사기관에 성금 전달



뉴욕교협 주최 사랑의찬양제에는 8개 팀이 참여해 공연을 펼쳤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원기 목사)가 주최하는 '사랑의찬양제'가 2일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설 목사)에서 개최됐다. 사랑의찬양제는 뉴욕교협이 이웃사랑을 직접 실천하는 기관을 돕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8개 봉사기관에 후원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찬양제에는 총 8개의 팀이 참가해 이웃사랑을 위한 경연을 선보였다. 회장 김원기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에 동참해주고 참여해주신 교회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예수님의 빛을 비추며 애쓰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힘이 되도록 격려와 자그만 정성이라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찬양제는 배부위심(단장 황현정)이 준비찬양을 인도했으며, 이재덕 목사의 기도로 시작됐다. 이후 챔버 오케스트라(악장 유안나)의 연주, 뉴욕 퀸사신교협창단(단장 임순자 권사)의 합창, 두나미스중창단(뉴욕예일장로교회)의 중창, 유경화 씨의 독창, 박성하·박상미 씨의 혼성 듀엣, 뉴욕장로성기단(단장 손성대)의 합창,

스퀘어드레이디스싱어즈(팀장 이영주)의 혼성 합창, 밀알 크리스탈 핸드벨의 핸드벨연주가 이어졌으며 김원기 목사의 축도로 막을 내렸다. 이날 모인 후원금은 코코장애아동서비스센터(전선덕 대표), 달리다꿈신교회(김희복 목사), 무지개의 집(김은경 사무총장), 청소년센터(사무총장 김현동 목사), 청소년센터(최지호 목사), 나눔의집(안승백 목사), 생명의 전화(김영호 목사), 패밀리인터치 등 8개 기관에 전달된다.

김대원 기자

# 헤어칼라 전문점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헤어칼라

**\$30 up \$1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30.00

매직 스테이리트

**\$10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미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질라한 실재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HAIR SKIN**

3800 Wilshire Blvd., #2076 L.A., CA 90010 Tel: 213-739-1022

스킨케어: Tel: 323-919-3994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00 AM ~ 10:00 PM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 한함.

• 헤어칼라 발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오세요)**

LA 최고의 워치-머큐리 콘도 상가 2층

**일서+웨스턴 코너**



# KWMMC 제 24차 전국 총회 개최

## 한인세계선교대회 대한 전반적 토의 이뤄질 예정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대표 의장 서삼정, 사무총장 고석희 이하 KWMMC)는 오는 11월 14일(월)부터 16일(수)까지 타코마중앙장로교회(담임 이형석 목사)에서 제 24차 전국 연차 총회를 개최한다.

북미주 한인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이번 총회에서는 내년 7월에 개최되는 제 7차 한인세계선교대회에 대한 주제와 장소 등 전반적인 사항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KWMMC는 회원교회와 단체 대표들의 참석을 당부했다. 24년째를 맞는 제 7차 한인세계선교대회에서는 △ 북미주와 한국 간의 긴밀한 선교 협력 △ 북미주 및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무한한 선교잠재력과 선교



역량 결집 △한국과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사들의 협력 선교를 확대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KWMMC는 이번 대회를 통해 무한한 선교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북미주 및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와 한국 간의 긴밀한

선교협력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전 세계 한인선교사들의 동반자적 협력 선교를 강화하고 연합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WMMC는 북미주 디아스포라 한인들과 한국의 선교 대각성을 위해 제7차 한인세계선교대회를 전후로 북미주 각 지역과 한국 여러 지역에서 선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KWMMC는 제 7차 한인세계선교대회에서는 어린이 교육선교, 평신도선교운동, KWMMC 차세대지도자개발, 기독교료선교 등에 대한 주제로 심도있는 논의도 진행될 것이다. 문의 : 253)589-0900 타코마중앙장로교회 김브라이언 기자

# 여선교회연합회 기도회 개최



워싱턴지역여선교회연합회(회장 김정숙, 이하 여선교회연합회)가 9월 29일(목) 저녁 인터내셔널 칼보리교회(담임 이성자 목사)에서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도회는 김정숙 회장의 사회, 그레이스 박 회계의 기도, 정은선 서기의 성경봉독, 여선교회연합회중창단의 특송, 이성자 목사의 설교, 찬양, 합심기도, 김성도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성자 목사는 계시록 18장 1-5절, 역대하 7장 14절을 본문으로 "이 땅을 고쳐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먼저 이 목사는 "주님 앞에 깨끗한 신부가 되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 이 지역에 소망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여선교회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이목사는 "9.11 사태나 카트리나, 일본의 쓰나미 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영적인 죄 때문이다. 영적인 죄가 쌓이게 되면 도덕적인 죄, 정치적인 죄, 경제적인 죄(황금만능주의) 등이 이어지게 된다. 이런 죄악된 세상을 중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한다."며 이사야서 58장을 인용해 올바른 금식기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합심기도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김정자 증경회장), 국가와 민족 부흥을 위해(김수희 증경회장), 경제 회복을 위해(진정자 증경회장), 테러와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도록(김환희 증경회장), 청소년들을 위해(김지석 목사) 각각 기도했다.

김정숙 회장은 "크리스천 여성들의 기도와 단합없이는 한국교회의 발전도, 이민사회의 기반도 이루어질 수 없기에 여선교회 회원들과 이사를 중심으로 기도의 불을 붙이겠다"며 "앞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금식하며 각 처소에서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여선교회연합회는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페어팩스코너에서 개최되는 제9회 코르사 페스티벌에도 부스를 마련, 바자회를 진행한다. 바자회 수익으로는 캐나다와 호주 선교사들을 지원하게 된다.

문의 : 703-975-6690(김정숙 회장) 주요한 기자

# 한인회장 후보 정견발표, 무엇이 달랐나?



[기호 1번] 김의석 후보

### 정부 그랜트 추진과 차세대 정치 참여 동감, 반 이민법 대처에는 이견



[기호 2번] 김창환 후보

제30대 애틀랜타한인회장 후보자 정견발표가 1일 오후 6시 한인회관에서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 김인구 보도부장의 사회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두 후보는 '재정 자립을 위해 주류 기업과 정부의 그랜트를 획득을 추진, 차세대의 정치 참여 활성화, 패밀리카센터 활동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같이한 반면 '반 이민법'에 대한 대처, 한인회의 대표성 회복 방안'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기호 1번 김의석 후보는 '현 한인회의 정책을 유지 발전,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를 통한 한인회의 발전'을 강조했으며 기호 2번 김창환 후보는 '대부분의 정책은 유지 발전시키되 한인회관련법 등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는 모델을 제시, 2세와 1세가 함께 할 수 있는 한인회 초석 놓기'를 강조했다. 다음은 각 질문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

- 한인회의 사업 중 계속해서 나갈 것과 새롭게 추진할 것은 어떤것이 있나

[기호 2번 김창환 후보] 기존한인회의 공약은 크게 대표성 회복과 네트워크, 재정자립, 교계협력, 한인회관 건립 등이었다. 다 중요하고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다. 이 중 한인회관 건립은 현실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패밀리카센터의 경우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개선과 발전이 필요하다. [기호 1번 김의석 후보] 28대, 29대 한인회는 다리 놓는 역할을 활발히 했다. 한인회 내에는 크게 한

국교회와 패밀리카센터, 한인회관련법 위원회, 정치활동위원회가 있다. 이를 잘 이어 나갈 것이며 특히 코리안 페스티벌은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해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

- 30대 한인회는 어떤 비전을 갖고 이끌 것인가

[기호 1번 김의석 후보] 지역사회를 이끌 수 있는 커뮤니티로 탈바꿈해야 한다. 10대를 위해서는 SAT 강화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구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20~30대를 위해서는 취미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을 권장하고 취업 및 창업 설명회 등을 가질 것이다. 40~50대를 위해서는 무료건강 검진을 추진하겠다. 노인들을 위해서는 노인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인회 문화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기호 2번 김창환 후보] 2세와 1세가 함께하는 열린 한인회이다. 지금까지 2세들의 동참이 어려웠다. 2세가 중심이 되면 1세는 자연스럽게 한인회를 돕게 된다. 그들이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2세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2세와 1세의 가교를 놓는 한인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2세들이 중심이 되면 청소년 문제가 줄어들고 한인회도 보다 강력해 질 것이다.

- 28대, 29대 한인회는 '다리 놓는 한인회'가 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29대 한인회는 이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기호 2번 김창환

후보] 1.5세와 2세들과 소통을 위해 20대를 런닝메이트로 삼았다. 아마도 한인회 역사상 최초일 것이다.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한다. 그들은 지금 설 자리가 없어 방황하고 있다. 그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 [기호 1번 김의석 후보] 최근 한국 대기업의 조지아 진출로 주 정치사자 조지아 고용장출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한국 정부와 주정부의 교류가 한인사회에 큰 힘이 된다. 은종국 회장이 주류사회와 교류하며 후진들을 소개하는 모습을 봤다. 주류 정치인들의 공통된 말은 아시안은 선거운동을 후원하지도 않고 투표하지도 않기 때문에 관심 밖이라는 것이다. 투표는 권리이자 의무이다. 우리가 주인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투표해야 한다.

- 최근 경제적으로 힘든 한인이 많다. 구제사업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일할 것인가

[기호 1번 김의석 후보] 패밀리카센터가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재정 한계로 한 가정당 300불을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다. 봉사센터는 그들이 재정적으로, 심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한인사회 내의 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미국 정부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 대기업 또한 사회 환원을 위해 책정된 예산

이 많다. 헨리 김 런닝메이트와 함께 이들 그랜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기호 2번 김창환 후보] 패밀리카센터가 CPACS와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방정부, 주정부에 아시안을 위한 펀드가 많다. 1.5세, 2세들에게 그런 펀드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있다. 조지아크리스찬대학을 17년간 이끌어 해오던 일이다. 이런 일을 감당하려면 오랜 기초 작업이 필요하다. 한인회의 재정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 그럼 면에서 한인회의 기초를 잘 마련하겠다.

- 한인회의 대표성 회복을 위한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가

[기호 2번 김창환 후보] 한인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계각층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현재 320명이 한인회비를 납부했다. 한인회가 10만인데 무엇이 문제인가. 2세가 한인회를 이끌어 가고 1세가 이를 뒷받침해 간다면 더 많은 한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세대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힘있는 한인회가 될 것이다.

[기호 1번 김의석 후보] 한 목회자를 통해 '한인회가 어떤 목표를 중시할지 말고 인과 관계를 중시해 달라. 한인 사회를 곳곳을 찾아 다니면 한인들 스스로가 섬길 것'이라는 충고를 들었다. 또 한인회관을 문화회관으로 확대해 많은 사람들과 단체가 입주하면 상호협력과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다.

김앤더슨 기자

# 국제성경연구원 9월 모임

## 듀크대 장국원 박사 "창조 회복의 섭리" 강연

국제성경연구원(원장 김택용 목사) 9월 모임이 지난 9월 27일 에난테일 팰리스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노스캐롤라이나 듀크대학교 연구수로 있는 장국원 박사가 초청돼 특강했다. 근동문화 연구의 대가 장국원 박사는 "창조 회복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창세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며 "어떤 학자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원 역사 또는 Saga라고 말하는 자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신앙

관에서 비롯된 것이며, 구속사적인 면에서 성경을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전 10시 45분부터 시작된 특강은 순인화 부원장의 사회로 특별 기도제목을 놓고 합심 기도(박윤식, 김현수, 박상철 목사 인도)의 시간을 가졌다. 12시부터 시작된 특강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심도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국제성경 연구원의 다음 모임은 10월 25일(화)로 내정되어 있다. 권나라 기자

## 웨이스 기독교대학교 · 신학대학원

Faith Theological Seminary & Christian College(Tampa, FL)

**SEVIS**  
I-20  
상당

### 2011년 봄·가을 학기 신입 편입생 모집

본교의 특전 및 소개 전 세계 50개주가 인정하는 정규학위 수여 (Academic Degree)

- 본교는 신구약 성경의 정확무오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성경중심의 보수주의 개혁신학을 교육하는 대학으로 유명 정규학위(아카데미 디그리)를 수여하는 신학대학원입니다.
- 본교는 미국남부 플로리다주 주정부 교육청에 등록(NO 246083)된 신학대학원입니다.

#### 정규 학위 인준 기관

- 특전:**
- \* ACSI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 \* AMFED (American Federation Christian College Schools)
  - \* CIE (Commission of Independent Education)
  - \* SAABC (Southern Association of Bible College)의 정회원에게 가입되어 미국어디서나 학점을 인정받고타신학교와 학점교류도 가능합니다.
  - \* 장학금 혜택은 전학생 (50%)
- 편입학생 및 신입생 접수(타신학교 학점인정) 수시접수
  - 졸업후 미국교단과 한국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을수 있음
  - 명문 유명학교와 학점교류
  - 통신강의 (아카데미 학위취득)
- ① Dallas Theological Seminary      ② Indian University  
 ③ Lee University                            ④ Liberty University  
 ⑤ Oral Roberts University                ⑥ Regent University

### 학생모집(학위과정, 학점, 자격, 논문)

On-campus	Intensive and Distance Special Education Program			
학위	학과	학점	자격	특채
대학부 Bachelor 50% 장학금지급	학사-신학(B, TH)	128	고졸 이상자	Faith Theological Seminary & California 학위
	교육학(B,C,E)	128		
	목회학(B,P,M)	128		
대학원 Master 50% 장학금지급	목회학석사(M,P,M)	96	신학대학 및 일반대학 졸업자	
	신학석사(M,Div)	96		
	교육학석사(M,C,E)	96		
박사과정 Doctor Degree 50% 장학금지급	상담학석사(M,C,C)	96	석사학위이상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목회학박사(D,Min)	32		
	신학박사(Th,D)	64		
	교육학박사( D,C,E)	64		
	상담학박사(D,C,C)	64		
신학 Ph.D 상담학 Ph. D.	신학 Ph.D	64	신학박사·상담학박사 소지자	
	상담학 Ph. D.	64		

제 1 캠퍼스: 3251 W. 6th St., #101, L.A, CA 90020 수시접수

학장 : 양병삼 목사 Th.D

제 2 캠퍼스: 6882 Selma Ave., Hollywood, CA 90028 (213)503-5330 수시접수



조주호 칼럼

###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하며

조 주 호  
리폼드 대학교 대학원 총장



인간은 누구나 삶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존의 가치를 전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세상 최고의 가치관에 두시고 사랑 하셨습니다. 사랑은 인간들의 생존 속에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풍성한 곳에는 평화도 있고 기쁨도 있고 함께 공존하는 의미를 발견하게 합니다. 평등한 삶의 가치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나사렛이란 시골 마을에서 태어 나시고 인류 구원의 가치를 이루시려고 성육신 하시고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어부들에게 주의 사도로서의 길을 가도록 가르침을 주시고 사마리아로 가서서 세대로부터 소외당한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관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곤 하셨습니다.

성품과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신앙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예배를 바르게 지켜 갈 수 있을까!

어떤 교회는 세상에 속한 교회로의 모습이 들어 나고 또 다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의 위치를 가지고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속한 교회에서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사랑받고 존엄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영적인 불구자로 만들어 임의로 끌고 다닙니다.

하나님과과의 관계를 이룬 교회안에서는 고아와 과부 가난한자와 부자가 함께 공유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중심을 이루어 신앙인의 역할을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자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일을 등한히 한다면 영혼없는 몸과 같이 죽은 자의 모습만이 존재 할 것입니다.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교제 하는 동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생존의 의

미는 잃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날때에 뉘게 그림자라도 덮히면 다 나음을 얻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멀리 하고 육신의 눈을 뜨고 있을때는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부활신앙으로 돌아간후에 베드로는 각색 병든자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다 나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영향력있는 삶은 바로 각종병에서 귀신이 이탈되는 삶의 모든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힘을 더해주는 삶의 가치와 사랑을 부여하고 삶의 존엄성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거룩한 교회로 보냄을 받고 교회가 부여한 직분과 명분이 있는곳에서 얼마나 더 귀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느냐 하는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루어 집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것이라고 말씀 하십니다. 오늘의 교회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대의와 명분에 말도 록 영혼 사랑에 힘을 다하는 교인들을 보기 어려운 시대를 맞이 한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라고 하는 행동으로 가는 신앙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들은 교회안에서 마저 등한히한다는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부자가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왔다가 근심하며 돌아간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요. 재물이 많고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쌓아 놓은 재물보다 더 귀한 영생의 가치를 바로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에서 소유의 만족하면서 모든것을 잃는 사람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고 하면 약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 가는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나요.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니 하나님으로는 다 할수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박종길 칼럼

### 다시 양화진에서



박 종 길  
엘바인 은누리교회 목사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2개월 20일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익숙하게 된 캘리포니아의 날씨가, 엘바인인, 그리고 따뜻하게 맞아 주시는 성도님들과 동역자분들이 감사했습니다. 서울에 나가 있는 동안 귀하게 섬겨주신 권혁번 목사님에게도 감사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복사님을 천국으로 보내드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목사님으로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것, 목사님을 모시고 목회할 수 있었다는 것이 축복이었다는 것, 목사님의 비전과 삶이 결코 헛

되지 않으시다는 것 등, 천국환송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운 눈물과 함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서울에 머무는 동안 양화진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양화진은 한국에 왔던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묘지인데, 100주년 기념교회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많은 정비와 손길을 통해서 아름답게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중국선교사로 가기 전, 자주 들러서 기도도 하고, 마음도 다지던 곳이라 저에게는 영적인 고향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하게 느끼는 영적인 장소들이 있으신지요? 혹 한국에 나갈 기회가 되시면 한 번 양화진을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친절하게 안내도 해 주시는 기념관도 있고, 묘지마다 설명도 잘 되어 있어서 뜻 깊은 시간과 체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주시지는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지, 어떻게 삶의 미래가 열려지고, 내 안의 소원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분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가르쳐주십니다. 저는 양화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조용하고, 경건한 장소에서 그런지,

아니면 선교사님들의 삶이 주는 감동과 은혜 때문인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한 말씀도 주시지만 대부분은 성경을 통해서,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밀고도 낮은 조선을 찾아오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 아님을, 무엇이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오셨고, 저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싶었습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래도 안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양화진 옆으로 흐르는 한강, 가을의 정취를 주는 한강의 가을풍경도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미소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단지 우연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만이 있습니다. 다 알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0월의 시작,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세환 칼럼

### 내리 사랑, 올리 사랑



김 세 환  
LA 연합감리교회 목사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뒷 사람이 아랫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고, 상관이 부하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순리(順理)라고 말입니다. 옛 속담에도 "내리 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올리 사랑)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몇 달 전에 차매에 걸린 칠순의 어머니를 라스베가스에 버린 비정한 아들 이야기가 매스컴에 보도 된 적이 있었습

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어떤 마음씨 좋은 한국 사람의 도움으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 경찰서까지 무사히 돌아 올 수 있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알게 된 경찰관들이 나쁜 아들놈이 어디에 사는지 불쌍한 어머니에게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어머니는 자식을 보호하려고 "자신이 길을 잃어 버린 것이지, 아들이 버린 것이 아니라"고 같은 말을 되풀이 했다고 합니다. 자식을 끝까지 변호 하려는 어머니의 "내리 사랑"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자기 새끼는 예뻐서 물고 빨면서, 날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는 눈 길하나 주지 않는 것이 오늘 날의 세태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을 위해서 자식을 낳은 것도 아닌데, 자기 자식들을 돌보면서 부모에게 공치사를 떨고, 유세를 부리는 철없는 자식들도 있고, 심지어는 자녀 부양의 무거운 짐을 송두리째 연로한 부모에게 다 떠넘기는 못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자신의 가족마저도 내팽개치는 나쁜 인간들이 많이 있어서 가족을 유난히 챙기는 사람들이 "훌륭한 인간의 표본"으

로 떠 떠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아름답고, 고귀한 이유는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내리 사랑" 때문이 아니라,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올리 사랑"때문입니다. 동물들도 자기 새끼는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지킵니다. 하지만, "올리 사랑"은 의식적인 노력과 수고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랑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본능과 충동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희생까지 내포한 순수한 열정 때문입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출애굽기 20: 12)고 가르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고난을 받는 민족을 보면 같이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는 원수도 품을 수 있는 "올리 사랑"이 이 세상을 따뜻하고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연적으로 흘러내리는 "내리사랑"도 아름답지만, 정말 소중하고 고귀한 사랑은 위로 올라가는 "올리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를 "인간"(Human being)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역행(逆行)하는 사랑은 사람의 깊이를 가능하게 하는 계곡입니다.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최저 1¢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민중기 칼럼

최성규 칼럼

### 눈물 젖은 두만강



민 중 기  
충현선교교회 목사

연변에서 두 밤을 자면서 밤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의 상황이 너무도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연변의 과학기술대학을 방문하면서 금방 북한에서 돌아온 분들의 소식을 듣는 순간에도, 두 시간 떨어진 무산시(茂山市)에 가서 직접 도시의 경관을 돌아본 후에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의 내년 사역으로 정하여 기도하는 북한이 너무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사실과 그 북한의 사정이 금방 변화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두만강은 창백해 보였습니다. 한 뿔한 두만강은 민족의 애환을 안은 채 슬프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강을 넘어서 수많은 탈북자들이 고국을 등졌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쪽에게 몸을 팔려 나간 수많은 우리의 누이동생이 있었으며, 굶어 죽지 않기 위하여 불안하게 국경을 넘는 사람이 이제 수십만 명이 되었습니다. 장군님의 "천국"을 등진 사람들 중에서 이제 23,000명의 사람들이 그토록 비난했던 "지옥" 대한민국으로 망명을 하였습니다. 연변에서 일송정을 지나 두만강가에 펼쳐진 무산을 보는 것은 햇빛 우물함 그 자체였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무산시의 장엄한 경관이 우리를 압도시킬 만도 한데, 두 눈에 가득 찬 햇빛 시가지는 단조로운 집과 가지런한 굴뚝들, 그리고 포장되지 않은 시가지와 차랑한 대 다니지 않는 질박함이 나를 슬프게 했습니다. 온통 파헤쳐진 높은 노천 철광에는 철 사이 없이 중국트럭이 다니고 있었고, 50년 제굴권을 팔아버린 북한의

가난이 분노를 자아낼 뿐이었습니다. 농사를 산비탈에 짓었다고 다 파놓은 산자락 밭은 국토를 누더기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슬펐습니다. 이것이 두만강의 마지막 사연이라면 너무도 슬픈 노릇입니다. 북음은 민족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저는 믿습니다. 북음은 개인을 변화시키면서 공동체를 변화시킨다. 북음은 교회를 변화시킬 뿐 만 아니라 결국은 사회를 새롭게 합니다. 북음을 버리는 것과 북음을 가슴에 품는 것이 어느 것이 유일한지는 남과 북의 지난 60여년의 역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용과 신뢰가 사라져 버린 사회, 거짓과 증오가 가득 찬 사회, 평등을 노래하면서 인간의 차별과 인권의 취약성이 극에 달한 사회, 그리고 온갖 신화와 속임수가 난무한 사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는 신음이 됩니다. 간구는 부르짖음이 됩니다. 그 척박한 사회를 소망으로 두르기 위하여, 그 새로운 미래를 기약하기 위하여 우리는 "천국"을 떠나 남으로 온 사람을 북음으로 섬기려 합니다.

### 영어회화, 가능합니다

영어 회화가 쉽지 않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영어 공부를 했으니 미국에 오면 쉽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막상 미국에 와보니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 미국에서 와서도 어덜트 스쿨 등에서 공부를 해보지만 말이 잘 되지 않는다. 미국에 오래 살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비즈니스에 관한것은 어지간히 되는 것 같은데 일상적인 대화는 잘 되지 않는다. 할수없이 영어를 포기하고 영어가 필요한 상황을 피해 가며 살아 보지만 그게 또 우리가 미국에 사는 한 만족한 삶이 될 수 없다. 자녀와의 관계도 살아 갈수록 원활해 지지 않는 걸 느낀다.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오랫동안 영어를 "공부"만 해 왔기 때문이다. 영어공부를 많이 해서 영어에 대해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실제 말이 되지 않는 것은 말하는 훈련을 하지 않아서이다. 영문학자들의 지적대로 영어회화는 학문이 아니고 기능이다. 기능은 공부와 병행 해서 훈련을 해야 한다. 반복해서 오랫동안 훈련해야 익숙해서 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컴퓨터도 이론보다 마우스

와 키보드를 많이 사용해봐야 익숙하게 되듯이 영어도 입으로 많이 해야 한다. 실제 베스트 영어 훈련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통해 영어에 자신감을 얻고 있다. 박세운 씨의 예는 이 방법을 잘 증명한다. "큰소리 영어 학습법"(2010년 발행)의 저자 박세운씨는 한국에서 회사에서 근무중 38세 될때 영국에 1년 유학 할 기회가 왔다. 석사과정이었다. 영어 실력은 영국대학원에서 요구 하는 시험에서 입학가능 점수가 6.5인데 3.5정도 나오고 회화는 거의 안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어학 연수의 기회를 주고 싶어하고 일단 영국에 갔다. 마음에 드는 대학원은 "엑서트"시에 있는데 평점 7을 요구 했다. 두달간 어학연수후 시험 보기로 하는 조건으로 등록했다. 오전 대학에서 공부하고 오후 부터는 집에서 저녁까지 한국에서 가져온 영어 성경을 큰소리로 읽는 방법을 택했다. 수년전 일본어 공부때 효과를 본 방법이었다. 매일 목소리가 나오지 아니할때까지 계속하고 한시

간 정도 듣기 훈련을 했다. 결과는 2달후 입학 시험에서 평점 7을 받고 한 클래스 40명중 36명이 외국 학생인 데교수와 가장 활발히 얘기하는 학생이 되었다. 한국인 사회에서도 유일하게 교수와 토론하는 학생으로 인식 되었다. 세 자녀들도 같은 방법으로 공부하여 사립 학교 출신인데도 미국 명문대학에 두 자녀가 입학하고 막내는 서울 특목고에 영어 특기생으로 입학 할수 있었다. 지금은 한국에서 큰소리 영어학습 학원을 운영하며 동남아에 진출할 꿈 가지고 있다. 베스트 영어 훈련원은 말하는 훈련을 통해 지금까지 할수없었던 영어공부를 영국에 가서 하기로 하고 일단 영국에 갔다. 마음에 드는 대학원은 "엑서트"시에 있는데 평점 7을 요구 했다. 두달간 어학연수후 시험 보기로 하는 조건으로 등록했다. 오전 대학에서 공부하고 오후 부터는 집에서 저녁까지 한국에서 가져온 영어 성경을 큰소리로 읽는 방법을 택했다. 수년전 일본어 공부때 효과를 본 방법이었다. 매일 목소리가 나오지 아니할때까지 계속하고 한시

건강 칼럼

### 숨 제대로 쉬려면, 가슴을 짹 펴자



어렸을 때 한번쯤 한숨을 쉬다가 어른들에게 "나이도 어리면서 땅이 꺼지게 왜 한숨이나"는 핀잔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답답하거나 숨쉬기가 힘들 때 으레 한숨을 쉬게 되는데, 최근 들어 숨을 편하게 쉬지 못해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다. 호흡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부분 폐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흉곽, 복부, 목 등에 문제가 생겨 호흡이 힘들 수 있다. 숨을 들이쉴 때 흉강을 넓히기 위해 갈비뼈는 올라가고, 횡격막은 내려가게 된다. 숨을 내릴 때는 흉강을 좁히기 위해 갈비뼈는 내려가고, 횡격막은 올라가게 되는데, 이 때 흉곽과 복부, 목 등의 주

변 근육들 역시 따라 움직이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호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컴퓨터의 사용시간도 늘어나면서 등과 어깨가 구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세로 인해 횡격막이 눌리면서 횡격막과 흉곽 주변 근육의 움직임까지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러한 자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슴을 항상 넓게 펴서 등을 바르게 하고 턱에는 약간 힘주어 당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편하게 앉아 가슴과 배에 손바닥을 가볍게 올려 놓고, 숨을 쉬어 보자. 복부에서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고, 가슴에 올려 놓은 손에서

만 움직임이 느껴진다면 앞은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앞은 호흡은 횡격막의 운동성을 감소시키고, 과호흡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목 주변 근육들을 긴장시키게 된다. 목 주변 근육들이 긴장하게 되면 숨을 들이쉴 때 쇄골 위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경우 쇄골 아래 부위를 가볍게 눌러보면 통증은 느끼게 된다. 이렇게 근육이 긴장되는 것을 예방하려면 숨을 깊이 들이쉬는 것이 좋다. 명상, 복식호흡, 요가 등을 할 때 내쉬는 숨은 일시적으로 내쉬는 속과는 좀 다르다. 이때 숨은 깊게 들이 쉬었다 느끼게 내뿜는 호흡으로, 이러한 호흡법을 대개 건강한 호흡이라고 한다. 하지만 의

식하지 않고 내쉬는 것을 의식적으로 바뀌어서 항상 깊고, 느리게 숨쉬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보다 쉬운 방법으로 깊은 호흡을 하자면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이다. 호흡을 통해 숨을 쉬는 방법이다. <동의보감(東醫寶鑑)>에서도 '대체로 사람이 달리면 숨이 가쁘고, 목이 쉬며, 깊이 잠들면 숨결이 거칠어지면서 코를 곤다. 오직 조용히 앉아있어야 숨이 고르고 완화해진다'고 하여 고르게 숨쉬는 것에 대하여 언급한 것을 통해 고르게 숨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코로 숨을 쉬게 되면 불순물이나 세균을 걸러내는 비강의 작용 이외에도 리듬감 있게 일정한 양

의 호흡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숨이 금방 차고 고르지 못한 구강호흡보다는 코를 통한 호흡이 바람직하다. 의식적으로 고른 숨을 쉴 때는 많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내쉬는 숨을 먼저 하는 것이 좋다. 자연스럽게 '후' 소리를 내듯 7초 동안 내쉬고, 5초 정도 숨을 최대한 들이마신 상태에서 1초 정도 있다가 다시 배가 속 들어갈 정도로 내쉰다. 숨은 개인의 기본과 주위의 영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조조하거나 긴장하고 화가 나면 자신도 모르게 얇고 짧으면서 거친 숨을 쉬게 된다. 이런 경우 심장 박동이 변하고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되는 등의 일시적인 변화가 일

어날 수 있다. 호흡의 조절중추인 연수가 자극을 받아 교감신경이 촉진되면 숨을 헐떡거리게 되고,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있을 때 호흡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기분전환과 심신의 안정을 위해 업무 중 한번씩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깊게 반복하여 고른 숨을 내쉬어주는 것이 좋다. 편안한 호흡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으로 스트레스와 피로감도 줄이고, 업무 능률을 올려보자. 좌우로 팔을 뻗은 후 팔꿈치를 접어 손바닥을 얼굴 방향으로 세운다. 몸을 정면을 본 상태에서 팔 전체를 앞뒤로 돌린다. 좌우 1세트 10회 반복한다. <자생한방병원 웰리스센터>

##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까?

자동차의 모든 문제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책임지고 고치겠습니다.

# 워싱턴 바디샵 으로 연락하세요.

30년 경력으로 정상가의 50%만 받습니다.



1800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워싱턴길 버몬과 노르만디 사이)

323.732.9693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d



중고차 황제 김기형

##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329-3535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 합법적 집 · 차압방지

\$500 FLAT ★ N.O.T와 N.O.D 전문 ★  
A.I.T.D./WRAP(모게지 "합법양도")  
최장 36개월 연장 "합법거주" (본인파산 불필요)  
★ 각종 민사소송, 불법퇴거소송, 파산법전문 ★  
MERITZ CORP. / 마이클 J.D  
상담 : 888-210-1238

## LA 긴급 출장 자동차 정비

▶ 에어 컨 수리 아주 저렴 ▶ 도어 고장 (유리 포함)  
▶ 문장금 & 타이어 문제

LA 용달 & 심부름 센터

각종 보험 완비  
(213) 926.1243 / (213) 435.5736

##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 면허 소지한 원장이 직접 지도합니다 )

10월 28일(금) 시험대비 CDT 치과기공사 면허 응시생 모집  
안정된 기술직업 - 한번 시작해 보세요!

- 4-6개월, 1년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봄/가을학기 속성과정 학생모집 (웍스, 포셀린, 메탈, 모델, 의치)
- 전 치과 기공 대학 학장, 현 면허 시험 강사 특별 지도
- 각종 장학금 혜택 목사님 추천서 10%DC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월서은행 3층)

초기  
이민자,  
재취업  
기술교육

## NEW HOPE CONTRACTION & PAINTING

APARTMENT RESIDENTIAL COMMERCIAL

- INSIDE REMODELING REPAIR PAINTING
- 전기, 플러밍, 목수, 모든 HANDYMAN WORK
- OVER 20년 경력, 모든 일 WARRANTY 헤드됩니다.

Tel. 310-756-9511

## 썬라이즈 페인팅

SUNRISE PAINTING

- 페인트, 루핑, 플라밍, 목수일
- IN & OUT SIDE
- 상업, 주택, 아파트 23년 경력

( 모든 일 적절 정직하게 저렴하게 해드립니다. )

Paul Seo, TEL : 213-884-7055 / 213-858-8484  
418 S. Newhampshire Ave. LA, CA 90020

##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밀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참삼 (바베큐용)
- 각종 Tea (커피, 등굴레, 홍차, 녹차 등)

818-306-7652

## 사고 팝니다 조립식 각종 선반 전문

New & Used Buy & Sell

Select color - 기독교일보 애독자 특별할인 -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미닛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를 보유하여 선반  
전문 회사입니다.

(323)855-5687 / (213)200-3050

## 금 샵니다

10K, 14K, 18K, 금, 은수저 등  
( 무료출장매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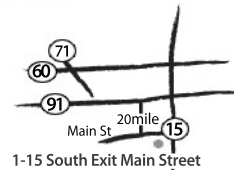
LA: 213-407-8759 / Other: 714-293-9701

##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 ▶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 ▶ 가리오게, 바베큐 시설 완비
- ▶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 ▶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951) 674-2581 / 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www.easy2424.com

##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 편강환

- ▶ 30여개국 해외진출
-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탠튼대학 (부속) 편강환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 CHOI AUTO

30년 경력, 정직, 성실로 봉사 하겠습니다.

323)732-3836  
Cell. 213-344-8098

1409 S. Western Ave. L. A., CA 90006 (Western + 15th)

## 가나 플러밍

- ▶ 메인 하수관 300피트 OK(초강력 머신 보유)
- ▶ 나무 뿌리로 자주 막히는 하수관(근본적인 해결)
- ▶ 싱크대, 욕조, 변기 등
- ▶ 노후된 파이프를 등 파이프 교체
- ▶ 새거나 터진 파이프 신속하게 해결
- ▶ 각종 Faucets, 디스펜서, 보일러, Toilet(수리 및 교체)

Tel. 213-220-4123

dish NETWORK AUTHORIZED RETAILER

\$29.99 /월, 12개월간

120개 이상의 미국채널  
무료 HD채널 (60개) 이상  
무료 24시간 KBS

디시 네트워크 공인딜러 KNA

www.knmedia.com

1.888.894.8949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성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결핵성,  
변비, 피부부상,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SK 전기 LIC 930775

전기에 대한 모든것!

주택, 상가, 신축 및 증축 (상가 내/외부 조명, 교회, 공장, 식당 등)

전문가의 오랜 경험으로 신속/정확하게

Tel 310.800.8200 / Fax 310.533.6383

명 치과 SANG DON CHOI - D.D.S.

213.387.2325

711 S. Vermont Ave. #Suite 111, LA, CA90005

이중창문교체전문

10개 기본창문(햇빛차단 Low-E)  
\$2,699 + Tax

→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온돌마루

TEL.(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철공 콘크리트

방수 · 루핑

LIC # 531243

웍스/자동차, 방범창  
계단, 철문, 자바라  
주차장 라인, 콘크리트  
아스팔트, 벽돌 담장

지붕, 옥실, 벽, 텍  
지하, 창문  
물세는 곳, 특수 방수  
공법, 완벽시공

213-327-9929 213-327-9929

한국방송 + 미국방송 동시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크레딧카드 은행구좌 당일현금

- ◎ 한국구좌 및 신규구좌 가능
- ◎ 크레딧 700이상(20만이상)

\*유학생 및 귀국자 특별플랜

T. 213-278-4466

결혼꽃 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장례꽃 (Funeral)
- 교회꽃 (Church)
- 생일 꽃다발 (Bouquet)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 “근본주의의 편견과 아집에서 우릴 깨우셨다”

### 故 이종성 목사 장례, ‘총회장’으로 엄수



故 춘계 이종성 목사의 장례식이 거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故 춘계 이종성 목사의 장례식이 5일 오전 서울 광나루 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장영일) 한경직기법관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으로 엄수됐다.

총회장 박위근 목사의 집례로 거행된 장례식은 부총회장 오정호 장로의 기도, 증경총회장 림인식 목사의 설교, 한국기독교학술원장 이종훈 목사의 조사, 증경총회장 유익웅 목사·장신대 김명용 교수의 추모사, 증경총회장 김창인 목사의 축도 순서로 진행됐다.

림인식 목사는 에스라 7:10-13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에스라는 학자이면서 제사장의 책임을 다했던 인물이었다. 이종성 목사님 역시 한국의 에스라라 할 수 있는 대

학자요 제사장”이라며 “한국교회의 신학정립에 약 30년간 주력하시면서 총회장까지 역임하셨다. 학문을 머리뿐만 아니라 몸소 실천에 옮기셨던 분”이라고 말했다.

림 목사는 또 “오늘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과 대학 교수들 대부분이 이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라며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은 좋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이다. 이 목사님은 이 소중한 일에 최선을 다하셨다”고 증거했다.

이어 “목사들의 스승, 교수들의 선생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한 이 목사님이야말로 누구보다 하늘의 상이 클 것”이라고

말한 림 목사는 “이 목사님의 일생은 스스로 배우시고 학생들을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양들을 키우시고 수많은 책들을 집필하셨던 일생”이라며 “생전 통전적 신학을 부르짖으셨던 이 목사님은 그 과업을 완성하시고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다”고 전했다.

고인의 제자였던 이종훈 목사는 조사를 통해 “이 목사님은 젊은 신학도를 발굴해 미래의 교회 지도자로 키우셨던 혜안을 가지셨던 분”이라며 “이 목사님은 교단과 장신대를 진정으로 사랑하셨다. 그래서 학문을 책상 위에서만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교단장이 되셔서 한국교회에 비전을 제시하셨다”고 말했다.

추모사를 전한 김명용 교수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분열됐음에도 통합측 교회들이 분열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폭넓은 신학을 가르치셔서 큰 그릇으로 키우셨기 때문”이라며 “이 목사님은 근본주의에 막힌 우리의 머리를 여셨고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힌 우리의 마음을 깨우셨다. 그 분이 가장 성서적이면서 복음적이고 또한 예루살렘을 지향하셨던 우리의 스승이자 아버지와 같은 분이셨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한편 이날 장례식 후 고인의 장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영락동산에서 하관예배가 거행됐다. 이 예배에선 장신대 총장인 장영일 박사가 ‘부활과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를 제 목으로 설교했다.

김진영 기자

# 세계성결교회연맹 한국서 제19회 총회 개최



WFHC 총회 개최예배에서 이정의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 ‘위기, 변화 그리고 협력’ 주제로 3일간 진행

세계성결교회연맹(World Federation of Holiness Churches) 제19회 총회 및 제7회 신도대회가 3일 오후 7시 개회예배 및 환영만찬을 갖고 ‘위기, 변화 그리고 협력(Crisis, Change & Cooperation)’을 주제로 3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WFHC는 한국·일본·대만·인도·인도네시아·미국·멕시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0여개국 성결교회와 선교단체 OMS의 세계적 성결교회 연합체로 1967년 창설됐으며, 웨슬리안·알미니안주의와 사중복음을 따르는 교단들이 가입돼 있다. 3년마다 총회를 개최하는 WFHC는 지난 2008년 일본에서 제18회 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1백여명의 각국 성결교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회예배에서는 이정의 목사(신촌성결교회)가 ‘행동하는 신학, 성결(롬 12:1-3)’을 주제로 설교했다. 이정의 목사는 “성결이란 무엇인가?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자신을 온전히,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성결의 삶은 나를 지켜

내기 위해 털고 닦는 면이 있는데, 너무 피하고 멀리하는 일이 많다 보니 소극적이고 위축돼 이것이 약점이 되기도 할 것”이라며 “이와 대비되는 적극적인 성결의 삶은 행동하는 신학이면서, 개인의 변화에 초점을 두지만 이것이 삶의 적극적인 원동력이 돼 사회의 변화로까지 나아가 수 있다”고 전했다. 인사말을 전한 고야 히루미 WFHC 의장은 “총회를 통해 각국 대표들이 각 나라의 현안들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어 의미가 있다”며 “특히 지난 3월 동일본 대지진 때 한국과 대만 등에서 헌금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후 각국에서 온 대표단의 소개가 이어졌다. 이날 개회예배에는 주남석 총회장을 비롯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임원진들과 이만신·최건호 증경총회장, 김문태 전 총무 등이 참석했다. WFHC는 4일 서울신대(총장 유석성 박사)에서 총회를 열어 각국의 보고와 함께 고야 의장의 주제강연을 청취하고 만찬과 함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대웅 기자

# “개종 이유로 사형선고, 코란에도 위배되는 것”

### ▶ 사회적 책임, 이란대사관에서 나다르카니 목사 사형 중단 촉구



4일 이란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다르카니 목사의 사형집행 중단을 호소하고 있다. ©기독교사회책임제

기독교사회책임제와 선민네트워크는 4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이란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에서 기독교로 개종해 사형선고를 받은 유세프 나다르카니 목사 대한 사형집행 중단을 촉구했다. 이란 라슈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

던 나다르카니 목사는 지난 2009년 10월 아들이 학교에서 이슬람 교육을 받는 것에 항의하다 체포됐고, 한 달 뒤 배교죄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나다르카니 목사는 세 차례에 걸친 이란 법원의 신앙 포기 권유에도 불구하고 “무슬

림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이슬람 신앙을 받아 들인 적이 없다. 나를 사형으로 내모는 것은 이란에서 기독교인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증명한 셈”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유엔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사람이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유엔 회원국인 이란에서 개종을 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코란의 관용정신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란의 기독교인 사형집행 소식은 전세계 기독교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큰 충격이 되고 있다”며 “개종했다는 이유로 생명을 잃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나다르카니 목사 대한 사형 집행은 히틀러가 수많은 유대인을 가스실로 보낸 것과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기독교나 불교국가에서 무슬림을 사형에 처한다면, 이란 대통령과 국민들은 옳은 일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는 종교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탄압도 받지 않는다”며 “이란도 인권과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는 정의로운 국가가 되어 세계인의 존경을 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신태진 기자

# 제9회 서울기독교영화제 폐막... “관객과 호흡 노력”

지난달 29일 서울극장에서 시작된 제9회 서울기독교영화제가 4일 오후 7시 폐막작 ‘누나’의 상영을 끝으로 6일에 걸친 대장정을 마쳤다. 폐막식에서는 영화제 기간 동안 상영된 단편영화를 대상으로 코이노니아, 케리그마 부문 당선작을 발표, 시상했다. 이번 제9회 서울기독교영화제는 전세계 14개국에서 선정된 39편의 단, 장편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등 장르와 형식을 뛰어넘는 영화로 채워진 알찬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상영작품 중 영화제 개막작인 손 매나 마라 감독의 ‘소울 서퍼’, 폐막작인 이원식 감독의 ‘누나’, 그리고 시몬 유 감독의 애니메이션 ‘리틀 제이콥’, 폐막작인 다큐멘터리 ‘네파리우스’ 등은 매진 사례를 기록하기도 했다. 영화 프로그램 외에도 영화제 기간 동안 다채로운 공식부대행사가 열렸다. ‘아주 특별한 만남-박지윤과 박지훈’ 이벤트에서는 방송인 박지윤과 가수이자 배우인 박지훈이 윤성은(영화학 박사)과 함께 영화와 기독교인으로서의 삶, 각자의 영역에서의 활동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다. 매일 저



제9회 서울기독교영화제 개막식 당시 모습

녁 서울극장에서 열린 ‘게릴라영화퀴즈대회’는 영화 지식을 자랑하는 열렬한 영화 팬들의 호응 속에 영화제의 흥미를 더했다. 또 ‘영화보고 솔로탈출’에서는 ‘영화와 로맨스’를 주제로 한 강의와 개막작 ‘소울 서퍼’, 배창호 감독의 <여행>을 묶어 상영했다. 서울기독교영화제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된 심야 상영이었다. 젊은 층부터 장년 영화 팬까지 다수의 관객들이 밤을 지새우며 자리를 지켜 관객들의 영화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이미경 기자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미주한인사회 대표  
종합법률그룹**

고객과 함께하는 것이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는 것을 저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20년의 결과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할 길을 늘 고민합니다. 고객들의 참된 동반자로, 때로는 감동적인 대변인으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특별상담]**

- 비자 거절
- 영주권 거절
- 추방재판

대표변호사 이문규  
LEE & KENT 법률그룹 대표변호사  
미국 투자법 및 투자이민법 전문변호사  
Univ. of Minnesota 법대 (고위법학 졸업(1993년))  
Univ. of Missouri 공법학 및 회계학 석사(1989년)  
캘리포니아 재판변호사 협회  
연방법원 및 세무법원 회계학 변호사  
미국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미주리주 공인회계사(CPA) 겸회계학  
Business Advisory Council(캘리포니아에 해당)  
미주 상공인 총 연합회 고문 변호사  
국제 Law Firm Council, Brotham, 20부  
국제거래/회사법/이민법/세법 및 중·간·건 해설

**▶ 이민법 [Immigration]**

- 각종 비이민비자 / 이민비자
- 취업비자·취업이민(EB1, EB2, EB3)
- 종교비자·종교이민·가족이민
- 투자비자(E2), 투자이민(EB5)
- 추방재판, 불법체류 구제
- 비자거절·항소

**▶ 상법 / 소송 [Business / Litigation]**

- 민사(소송, 중재, 항소) 부동산법
- 형사, 국제 소송, 기술 이전 / 상표법
- 상법(계약체결·위반)

**▶ 파산법 [Bankruptcy]**

- 개인 파산, 기업 회생
- Chapter 7, 11, 13 소송 및 차압
- 신용 문제 상담

**이문규 법률그룹**  
LAW FIRM

대표전화 213-380-2828

<p><b>LA Office</b> 3250 Wilshire Blvd, #1404 Los Angeles, CA 90010 213-380-2828</p>	<p><b>IRVINE Office</b> 8 Corporate Park #300 Irvine, CA 92606 949-442-8370</p>	<p><b>SEOUL Office</b>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02-7 영동빌딩내 더블유 오피스 J7호 02-541-0556</p>
--	---	--





### 산삼 가격 파괴 가격표

	산삼 수령	뿌리당 무게	뿌리수/LB	가격/454g
대	1호-2호 Mixed (60년-120년근)	1호:23-35그램	20-30뿌리	\$1,200/LB
		2호:15-22그램		
중	3호-4호 Mixed (20년-60년근)	3호:9-14그램	33-60뿌리	\$900/LB
		4호:5-8그램		
소	5호(10년-30년근)	5호:1-5그램	80-120뿌리	\$600/LB

(지난해의 가격에 비해 5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가격을 내렸습니다.)

### 산삼 기획 상품 가격표

시행일: 2011년 9월 8일

가 격	무 게	뿌리 개수	산삼 수령	종전무게
\$600	250그램	15뿌리-20뿌리	평균 30-50년근	200그램
\$200	90그램	12뿌리-15뿌리	평균 20-30년근	70그램

산삼의 <sup>2차</sup> 가격파괴, 산삼의 대중화 선언을 주도한 정직한 업체입니다. 산삼의 품질은 최고로, 가격은 최저로 해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 강력한 면역력 · 자연치유력

### 산삼도매 한인 최대유통회사

## 타 업체보다 5~10배 싼 가격

펜실베이니아주 북부 최상급 효능 햇산삼이 매주 두 번씩 들어옵니다. 주정부 발행 진품 인증서 첨부된 100% 살아있는 야생 산삼입니다. 채취시 흙이 묻어 있는 그대로 들여와 한 달 내에 전량 판매됩니다. 인삼, 홍삼이 안맞는 분들도 미국 산삼은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산삼 복용법은 씹어서나 달여서 드시도록 상세 소책자를 드립니다.

한국에는 매회 300그램까지 합법적인 면제품으로 반입이 허용됩니다. 한국은 미국산삼이 이곳보다 약50배 가량 더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미주 전 지역 무료 배송**  
**LA, 오렌지카운티 무료 배달**



전속모델 탤런트 한인수

안전한 인터넷쇼핑몰: [www.KBSmall.com](http://www.KBSmall.com)



(올림픽과 크렌셔 북동쪽 코너 1층 상가건물)



**\$200** / 소매가 ~~\$1,000~~

70그램 90그램 / 20~35년근 20~25 뿌리



**\$600** / 소매가 ~~\$3,000~~

200그램 250그램 / 40~50년근 15~20 뿌리

### 단골 구매 고객님께만 드리는 특별 혜택

1. 고객님의 택으로 보내드린 구폰용지를 자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모든 제품의 산삼 구매시 구매 상품의 산삼을 해당되는 퍼센트로 덤으로 더 드립니다.
2. 저희 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부작용 없는 최고급 염색약 명호치 마님 (박스당 22봉)을 산삼 구매가의 10%에 해당되는 만큼을 보너스로 드립니다.
3. 700ml 시판가의 정수 능력 순도 100%인 최고급 역삼투 정수기(자사개발-최초 6개 필터 장착)를 대당 원가인 \$249에 공급해 드립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L.A. 본 점 (213)365-2100  
O.C. 직영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 11am-5pm